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민 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박 소 연

#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 연구

장 민 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소연

# 인 준 서

박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종묘제례는 왕이 직접 참여하는 조선시대의 여러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최고의 국가제사이며, 종묘제례악은 이런 종묘제례에서 조상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행하는 기악(樂)·노래(歌)·춤(舞)을 말한다. 종묘제례악은 세조 이전에는 중국의 음악으로 이루어 졌었다가 세조 9년(1463) 세종이 창제한 정대업과 보태평으로 대체되었다. 제례악은 궁중 음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으로, 현재까지 내려오는 제례의 제례악은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이 있다. 이 중 종묘제례악은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창조한 음악으로 더욱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종묘제례악은 목적이 뚜렷한 기능적인 음악으로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선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써 제대로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한다.

현재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은 종묘제향과 함께 열리는 종묘제례악과 연주회장서 열리는 종묘제례악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묘제향과 함께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만을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으로는 박을 쳐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박 악사의 복식, 직접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악공의 복식, 노래(樂章)을 담당하는 도창악사(導唱樂師), 문무(文舞)인 보태평지무와 무무(武舞)인 정대업지무를 담당하는 일무 악공(佾舞樂工)의 복식이 있는데 도창 악사의 복식은 악공의 복식과 같으므로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악사 복식, 악공 복식, 일무 악공 복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종묘제례악의 현행의 형태는 세조대 이후부터의 형태이며, 종묘제례악에 대해 나타나 있는 세조대 이후의 문헌인 15세기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

儀)」·「악학궤범(樂學軌範)」, 17~18세기의 「종묘의궤(宗廟儀軌)」·「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세기 말 「조선악개요(朝鮮樂概要)」의 기록에 의해 살펴 볼 수 있으며, 이 중 복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형태도 기록되어 있어 시기별 종묘제례악 복식 파악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악학궤범」·「종묘의궤」·「조선악개요」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을 정리하는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행의 악인 복식은 단행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진자료 및 2013년 5월 5일에 종묘에서 거행된 종묘대제 행사에 직접 관람하여 자료를 추출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은 궁중 의례에 입혀지는 악인 복식이라는 특정한 부분이면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어 올바르게 지키고 계승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에 착용되어 지는 복식이다. 무형의 문화재는 전승과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복식은 이러한 문화재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가시성을 지니므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계승·변화되었으며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전통 악인 복식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계승에 보다 신중을 기릴 수 있을 것임에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종묘제례악에 대하여 의미와 연혁, 전승현황 등을 알아보았다.

둘째,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자료가 나타나 있는 조선시대 문헌 중 형태가 나타난 문헌인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를 중심으로 악인 복식의 종류 및 형태, 변화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현행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을 정리 하였다.

넷째, 조선시대 문헌과 현행의 악인 복식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악사 복식을 살펴보면 「악학궤범」에서는 복두·녹초삼·오정대·흑피화를 착용하였고, 「종묘의궤」도 동일하게 착용하였다.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밝힐 수 없었다. 현행 악사는 복두·홍배가 달린 청삼·각대·목화를 착용한다. 두식인 복두 착용은 「악학궤범」부터 현재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현행의 것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금색의 선이 둘러져 있는 것과 문헌 복두 각보다 크고 둥글게 보이는 차이가 있다. 외의는 두 문헌에서부터 보이던 녹초삼에서 쌍학홍배가 달린 청삼을 착용한 것이 이전의 것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대대는 문헌에서는 오정대를 착용하던 것이 현행은 각대를 착용하는데 형태는 오정대와 같으며 오정대는 검정색의 혁대이나 현행의 각대는 청색의 천으로 싸여진 각대를 착용하고 있다. 신발은 악학궤범 이후로 보이던 흑피화에서 목화로 바뀌었으며, 도면으로 봤을 때 문헌의 것보다는 짧아지고 지퍼를 다는 등 변화를 거치며 착용되었다.

악공 복식을 살펴보면, 「악학궤범」에서는 개적·비란삼·백주중단·백초대·백포말·오피리를 착용하였고, 「종묘의궤」에서는 개적·홍주의·백주말대·백포말·오피리를 착용하였으며, 「조선악개요」의 1892년 개정에서는 개적·홍주의·남사대·백포말·오피리를 착용하였으며, 1917개정에서는 백포말·오피리의 규정이 사라졌다. 현행 악공 복식은 개적·홍주의·남사대·목화를 착용한다. 현행 두식인 개적 착용은 「악학궤범」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이고 있으며, 홍주의는 「종묘의궤」부터 보이는 제도로 홍주의를 착용하면서 이전 비란삼과 중의로 입혀졌던 백주중단의 규정이 사라졌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대대는 백색의 명주로 만든 대를 띠었으나, 조선악개요부터 현행은 실로 꼬아 만든 남사를 띤다. 악공 신발은 문헌에서는 모두 단요(短鞣)인 오피리를 착용하였으나, 현행의 악공은 발목길이의 화의 일종인 목화를 착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일무 악공 복식을 살펴보면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는 보태평 일

무 악공은 진현관·남주의·적상·적말대·백포말·오피리를 착용하며 정대업 일무 악공은 진현관 대신 피변을 쓰며 나머지 복식은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과 같다. 「조선악개요」부터 현행은 보태평 일무 악공과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이 같으며, 「조선악개요」복두·홍주의·남사대를 착용하였고, 현행 일무 악공은 복두·홍주의·남사대·목화를 착용한다. 현행 일무 악공의 복식은 두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식은 악공 복식과 동일하다. 일무 악공 두식은 문헌에 피변에서 복두로 체제의 변화를 겪었으며, 「악학궤범」과 현행을 비교하면 복식 구성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진다.

따라서 악인 복식의 전반적인 변화로 복식의 제작과 보관, 착용이 용이하도록 현대화되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악사 복식은 현행의 외의에 흉배를 붙인다는 점, 악공 복식에서는 문헌 별로 계속 구성의 변화를 보이는 점과 신발이 리(履)에서 화(靴)로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일무 악공의 복식 또한 현행으로 올수록 보태평과 정대업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두식을 제외하고 악공의 복식과 같은 복식을 착용하는 변화를 보였다.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 연구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옛 선인들의 전통을 제대로 보존 계승 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1. 종묘제례악의 의미 및 구성 .....	4
2. 문헌에 따른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	16
1)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	19
2) 종묘의궤(宗廟懿軌)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	36
3) 조선악개요(朝鮮樂概要)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	51
III.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	67
1. 악사 복식 .....	67
2. 악공 복식 .....	71
3. 일무 악공 복식 .....	74
IV. 문헌 종묘제례악과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비교 .....	78
1. 악사 복식 .....	78
2. 악공 복식 .....	82
3. 일무 악공 복식 .....	87
V. 결론 .....	96

## 참고 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종묘제례의 절차에 따른 종묘제례악 악곡, 악장, 일부, 편성 악기	12
<표 2> 종묘제례악의 악인 분류	19
<표 3> 「악학궤범」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35
<표 4> 「종묘의궤」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48
<표 5> 「조선악개요」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58
<표 6> 문헌 별 종묘제례악 악사 복식	60
<표 7> 문헌 별 종묘제례악 악공 복식	62
<표 8> 문헌 별 종묘제례악 보태평 일부 악공의 복식	64
<표 9> 문헌 별 종묘제례악 정대업 일부 악공의 복식	66
<표 10>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77
<표 11> 악인 복식 구성 비교 표	95

## 그림 목 차

<그림 1> 악사의 복두-악학궤범 .....	24
<그림 2> 악사의 녹초삼-악학궤범 .....	24
<그림 3> 악사의 오정대-악학궤범 .....	24
<그림 4 > 악사의 흑피화-악학궤범 .....	24
<그림 5> 악공의 개적-악학궤범 .....	28
<그림 6> 악공의 비란삼-악학궤범 .....	28
<그림 7> 악공의 백주중단-악학궤범 .....	28
<그림 8> 악공의 백주말대-악학궤범 .....	28
<그림 9> 악공의 백포말-악학궤범 .....	28
<그림 10> 악공의 오피리-악학궤범 .....	28
<그림 11> 보태평일무 악공 남주의-악학궤범 .....	31
<그림 12> 보태평일무 악공의 남주의-악학궤범 .....	31
<그림 13> 보태평일무 악공의 적상-악학궤범 .....	31
<그림 14> 보태평 일무 악공 의 적말대-악학궤범 .....	31
<그림 15> 보태평 일무 악공의 백포말-백포말 .....	31
<그림 16> 보태평 일무 악공의 오피리-악학궤범 .....	31
<그림 17> 정대업일무 악공의 피변-악학궤범 .....	33
<그림 18> 정대업일무 악공의 남주의-악학궤범 .....	33
<그림 19> 정대업일무 악공의 적상-악학궤범 .....	33
<그림 20> 정대업 일무 악공의 적말대-악학궤범 .....	33
<그림 21> 정대업 일무 악공의 백포말-백포말 .....	33
<그림 22> 정대업 일무 악공의 오피리-악학궤범 .....	33
<그림 23> 악사의 복두-종묘의궤 .....	38
<그림 24> 악사의 녹초삼-종묘의궤 .....	38
<그림 25> 악사의 오정대-종묘의궤 .....	38
<그림 26> 악사의 흑피화-종묘의궤 .....	38
<그림 27> 악공의 개적-종묘의궤 .....	41
<그림 28> 악공의 흥주의-종묘의궤 .....	41
<그림 29> 악공의 백초대-종묘의궤 .....	41
<그림 30> 악공의 백포말-종묘의궤 .....	41
<그림 31> 악공의 오피리-종묘의궤 .....	41

<그림 32> 보태평일무 악공의 진현관-종묘의궤 .....	44
<그림 33> 보태평일무 악공의 홍주의-종묘의궤 .....	44
<그림 34> 보태평일무 악공의 적상-종묘의궤 .....	44
<그림 35> 보태평일무 악공의 적말대-종묘의궤 .....	44
<그림 36> 보태평일무 악공의 백포말-종묘의궤 .....	44
<그림 37> 보태평 일무 악공의 오피리-종묘의궤 .....	44
<그림 38> 정대업 일무 악공의 피변-종묘의궤 .....	46
<그림 39> 정대업일무 악공의 홍주의-종묘의궤 .....	46
<그림 40> 정대업일무 악공의 적상-종묘의궤 .....	46
<그림 41> 정대업일무 악공의 적말대-종묘의궤 .....	46
<그림 42> 정대업일무 악공의 백포말-종묘의궤 .....	46
<그림 43> 정대업일무 악공의 오피리-종묘의궤 .....	46
<그림 44> 헌가 악공 .....	50
<그림 45> 일무 악공 .....	50
<그림 46> 악공의 홍주의-조선악개요 .....	55
<그림 47> 악공의 남사대-조선악개요 .....	55
<그림 48> 일무 악공의 .....	56
<그림 49> 일무 악공의 .....	56
<그림 50> 일무 악공의 남사대-조선악개요 .....	56
<그림 51> 악사 복두-현행 .....	70
<그림 52> 악사 청삼-현행 .....	70
<그림 53> 악사 오정대-현행 .....	70
<그림 54> 악사 목화-현행 .....	70
<그림 55> 현행 악공의 개적 .....	73
<그림 56> 악사 홍주의-현행 .....	73
<그림 57> 현행 악공의 개적 .....	73
<그림 58> 악사 목화-현행 .....	73
<그림 59> 일무 악공 복두-현행 .....	75
<그림 60> 일무 악공 홍주의-현행 .....	75
<그림 61> 일무 악공 남사대-현행 .....	75
<그림 62> 일무 악공 목화-현행 .....	75
<그림 80> 종묘 소장 일무 악공 홍주의 .....	76
<그림 81> 현행 일무 악공 홍주의 .....	76

# I. 서론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은 조선 역대 임금의 신위(神位)를 모신 종묘에서 이들의 제사 때 쓰이는 음악의 총칭이다. 이 종묘악에는 조고(祖考)의 문덕(文德)을 노래한 보태평(保太平)과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정대업(定大業)이 있다<sup>1)</sup>.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종대에 창제되었으며, 세조대에 제향의 제례악에 사용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문화의 원형과 법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음악으로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 또한, 그 음악의 용도와 사상적 배경이 명확하여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 단순히 예술 음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sup>2)</sup>.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은 단순히 연주자의 복식이 아니라 종묘제향 의식과 함께 행해지는 종묘제례악의 연주자 복식으로서 절제되고 엄숙한 제례분위기 속에서 제사 드리는 대상인 조상신에게 예를 갖추고 기쁨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향의 연주자 복식으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종묘제례악은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제향에만 사용되어지던 음악이 연주회장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전승되는 제례악은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이 있으며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은 우리 고유의 음악으로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에서의 악인 복식을 연구하였다.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종묘제례악은 무형의 문화재로 제대로 보존과 계승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으며, 무형의 문화재를 행할 때 무형의 요소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보여지는 가시성을 지닌 복식 또한 제대로 알고 계승되어야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고, 우리 전통 악인 복식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계승에 보다 신중을 기릴 수 있을 것임에 의의를 갖는다.

1) 서한범(1995),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p.138.

2) 강환직(2009), 종묘제례악의 문화사적 가치. 국악과 교육 제17호 한국국악교육학회, p.71.

본 연구의 범위로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이라 함은 연주회장에서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이 아닌 종묘에서 종묘제향과 함께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의 연주자 복식을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이라고 정하였다. 종묘제례악의 악인으로서는 집박(執拍)을 하여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박 악사(樂師),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樂工),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추는 일무 악공(佾舞樂工)이 있으며 범위를 악사, 악공, 일무 악공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종묘제례악의 현행의 형태는 세조대 이후부터의 형태이며, 종묘제례악에 대해 나타나 있는 세조대 이후의 문헌인 15세기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악학궤범(樂學軌範)」, 17~18세기의 「종묘의궤(宗廟儀軌)」·「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세기 말 「조선악개요(朝鮮樂概要)」의 기록에 의해 살펴 볼 수 있으며, 이 중 복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형태도 기록되어 있어 시기별 종묘제례악 복식 파악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악학궤범」·「종묘의궤」·「조선악개요」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을 정리는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행의 악인 복식은 단행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진자료 및 2013년 5월 5일에 종묘에서 거행된 종묘대제 행사에 직접 관람하여 자료를 추출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을 연구하기에 앞서 종묘제례악에 대하여 의미와 연혁, 전승현황을 알아보고 종묘제례악이 지니는 가치를 먼저 살펴보았다.

둘째, 조선조 종묘제례악의 악인복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자료가 나타나 있는 문헌 중 형태가 나타난 문헌인 「악학궤범(樂學軌範)」, 「종묘의궤(宗廟懿軌)」, 「조선악개요(朝鮮樂概要)」을 중심으로 악인 복식을 정리하였다.

셋째, 현행의 악인 복식의 정리를 위해 단행본과 사진자료, 국립국악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종묘제례악을 직접 관람하여 자료를 얻는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행의 복식 규정은 따로 없었으며, 현행의 종묘제례악에 관한 것은 종묘제례악보존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넷째, 조선시대 문헌과 현행의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을 비교 정리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계승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종묘제례악의 의미 및 구성

#### 1) 종묘제례악의 의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란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이들의 제사 때 쓰이는 음악의 총칭이다<sup>3)</sup>.

종묘(宗廟)는 가정에 조상의 신부를 모신 가묘(家廟)가 있듯이 왕실에서 선왕(先王)들의 신주(神主)와 국가를 보위하는데 공이 큰 신하들의 신주를 모셔놓고 의례(儀禮)를 거행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종묘는 왕조(王朝)의 정신적 구심점(求心點)으로 왕권의 유지와 정당성 확보 및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은 종묘에 배향되어 있는 성왕들의 충직한 신하들의 음덕(陰德)에 의하여 유지된다<sup>4)</sup>고 믿었다. 오늘날 종묘는 정전(正殿)을 지칭하는 이름이나 조묘(祧廟)인 영녕전(永寧殿)이 있어 두 곳의 사당으로 이루어졌다<sup>5)</sup>. 종묘의 정전에는 19실(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를 모셨다.

예기(禮記)에서 보면 종묘제례는 다섯 가지 오례 즉, 길례(吉禮) · 가례(嘉禮) · 빈례(賓禮) · 군례(軍禮) · 흉례(凶禮)의 오례 가운데 길례에 속하는 것으로 흉례에 포함되지 않은 제사의식<sup>6)</sup>에 속하며, 조선은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세워진 국가이기에 건국의 필연성과, 망국의 유민들까지 감싸 안을

3) 강환직(2009). 종묘제례악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1.

4) 허선형(2002), 종묘제례악에 나타난 음악사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5) 양경숙(2009), 종묘제례악의 악보 및 음악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

6) 강환직(2009), 종묘제례악의 문화사적 가치, 국악교육 제27집, p.95.

수 있는 정통성 확립을 위해 종묘제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성리학적 전통에서 중시하는 효와 충의 구현을 위해 인신(人神)인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종묘제례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7). 조선시대 종묘제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생각<sup>8)</sup>되며 왕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 국가 제사로 조상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성심을 다해 창작한 춤과 음악이 연주되었다<sup>9)</sup>.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하여 정전의 댕돌(집채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 안쪽으로 돌려 가며 놓은 돌) 위와 아래에 편성된 연주단 등가(登歌)와 헌가(軒架)에서 제례의 절차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면 함께 자리한 성악인이 악장(樂章)을 노래하고, 무용수들은 일무(佾舞)라는 춤을 춘다. 이와 같이 음악과 노래와 춤이 종합적으로 연출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종묘제례악은 동양음악의 고전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보기 드문 음악유산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종묘제례악 전반에는 삼재사상과 음양 오행사상이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묘제례악을 이루는 등가와 헌가, 일무를 갖춤으로써 악 · 가 · 무는 전체 모습이 구현되는데, 당상(堂上)에서 연주하는 등가(登歌), 당하에서(堂下) 연주하는 헌가(軒架), 그리고 등가와 헌가의 사이에서 연주하는 일무(佾舞)의 세 가지는 유가(儒家)의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三才思想)을 반영한 것이다. 등가는 하늘[天]을 상징하고, 헌가는 땅[地]을 상징하고 일무는 사람[人], 혹은 사람의 일[人事]을 상징한다<sup>11)</sup>. 종묘제례악은 유교 정치사상의 영향 하에 창작된 것으로 종묘제례의 음악, 무용, 제기 및 제수 등에 전

7) 한정원(2007), 정조 이후의 제례악 악헌 변천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

8) 허선형(2002), 종묘제례악에 나타난 음악사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9) 신명호(2002),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 궁중 문화, 돌베개, p.249.

10) 문화재청(2001), 전계서, p.34.

11)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종묘제례악, 민속원, p.13.

반적으로 그 철학적 의미가 내제되어있으며 이는 삼재사상 및 음양오행 사상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유교이념에서의 예(禮)가 갖는 기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sup>12)</sup>. 종묘제례악은 ‘예’, ‘효’, 음양오행, 삼재사상 등의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두고 음악과 무용, 제기, 제수, 공간 등의 외적인 표현으로 종묘제례가 갖는 사상적 측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실천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묘제례는 무형 문화재 제도의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문화적 표상으로<sup>13)</sup> 제도화 하여 우리의 시대에 보여주는 지적산물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종묘제례악의 발생과 연혁

선사시대 또는 원시시대라고 일컫는 원시 공동체사회에서 발생한 제천의식은 그 성격에 있어 기악 · 성악 · 무용, 즉 악 · 가 · 무를 포괄하는 종합예술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악 · 가 · 무 형태의 공연예술은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음악문화가 형성 및 발전하는 데에 근원이 되었고, 이러한 음악들이 많은 변화과정을 거쳐 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14)</sup>

종묘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음악을 제향에 사용하기는 고려 초기부터라 하며 이때의 음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sup>15)</sup>

고려시대에 중국 송나라에서 수입된 제사 음악인 대성아악과 향악을 종묘제례악으로 섞어 사용하던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 몇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sup>16)</sup>.

---

12) 강환직(2009), 전계서, 학술지, p.94.

13) 상계서, 학술지, p.96.

14) 정경옥(2002), 조상제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

15) 문화재청(2001), 전계서, p.37.

16) 강환직(2009), 전계서, 학술지, p.82.

조선조 초기에는 고려조 것을 답습하다가 태조4년(1395) 11월 종묘악장(宗廟樂章)은 고쳤다<sup>17)</sup>는 내용이 태조실록에서 보이고 있으나 음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이후 세종12년(1430)년에 박연<sup>18)</sup>에 의해 정비된 종묘제례악이 연행되다가 세조10년(1464) 이후에는 세종이 1449년에 창제하여 궁중의 여러 잔치에 연주하던 회례악(會禮樂)이었<sup>19)</sup>던 보태평과 정대업이 종묘제례악으로 연행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종묘제례악은 세조10년(1464)을 전후로 하여 둘로 나뉜다.

1464년 이전에는 아악과 향악을 종묘제례악으로 연주하였으나, 1464년 이후 지금까지는 속악인 정대업과 보태평을 종묘제례악으로 연주하고 있다. 세조조 이후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선조조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음악이 약화되었으나 광해조에 점차 복구 하였다. 인조 14년(1636)에는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하여 10여년이나 제사 음악이 연주되지 못했으나 조선 궁중 음악기관 장악원은 악공 35명과 악생15명씩 50명을 구성하여 봄과 가을에 한 달 씩 차례로 연습시킴으로써 명맥을 유지하고 인조25년(1647) 1월 종묘 춘향(宗廟春享)에 다시 음악을 사용하였다<sup>20)</sup>.

조선 궁중 음악기관 장악원은 조선 초기의 전통을 지키려고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영조 때 이르러 병란 이전에 못지않은 규모로 종묘 제례악이 복구 될 수 있었다.<sup>21)</sup> 영조41년(1765)에는 9성(成=典)을 넘은 보태평에서 중광장을 그대로 두고 용광(龍光)과 정명(貞明)을 하나로 합치고 신 제악장을 보태평이나 정대업에 추가 하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보태평과 정대업은 인조(1623-1949) 이후 현재 까지 더 변천하지 않고 전승 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종묘제례악 22곡이다<sup>22)</sup>. 일제 강점기에도

17) 양경숙(2008), 종묘제례악의 악보 및 음악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

18) 국립국악원 편(2008) 종묘제례악, pp.26-27.

19) 문숙희(2011), 종묘제례악의 원형과 복원, 학고방, p.93.

20) 송방송(2001), [역대음악기관 연구] ‘악장등록’의 분석적고찰. 국립국악원, p.241.

21) 양경숙(2008), 전제서, pp.20-21.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광복이후 중단의 위기를 거쳤으며,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으로 다시 복원되어 연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세조대 이래 500여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귀중한 음악 유산이라 할 것이다<sup>23)</sup>

종묘제례악은 1964년 12월 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되며 현재 제향 외에 연주회장에서도 종묘제례악을 볼 수 있으며, 2001년 5월18일 유네스코에 의해 종묘제례와 함께 ‘인류 구전 및 문화유산걸작(Masterpei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3) 종묘제례악의 구성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의식 각 절차마다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여러 음악을 연주하며, 동시에 종묘악장(宗廟樂章)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문덕(文德)을 찬양하는 문무(文舞)인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와 무덕을 찬양하는 무무(武舞)인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곧 일무(佾舞)를 춘다<sup>24)</sup>. 이와 같이 종묘제례악은 음악과 악장, 일무로 구성되어 연출된다.

오늘날 종묘제례의 절차는 관례·천조례·초헌·아헌례·종헌례·음복례·철변두·망료례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례악을 연주하는 절타는 일반적으로 영신·전폐·진찬·초헌·아헌·종헌 철변두·송신으로 구분한다<sup>25)</sup>. 종묘제례악의 의식절차는 성종대에 완성된 「오례서」·「국조오례의」에 제사의 준비부터 제사종료 이후 단계까지 상세하게 기록 되어 있고 이후 현행의 행례기록을 중심

22) 양경숙(2008), 전계서, pp.14-16.

23) 문화재청(2001), 전계서, p.38.

24) 이송이(2011), 종묘제례악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25)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계서, p.83.

으로 의식 절차와 그 음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영신은 신을 맞이하는 절차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일무를 추는 일무원이 자리를 잡고, 신주를 신좌에 설치하고, 면복을 갖추어 입은 왕이 동문에 이르러 홀을 잡고 정문으로 들어와서 판위에 서면 행사를 시작한다. 오늘날에는 영신례가 신관례의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전폐는 신관례(晨裸禮) 절차 중의 하나이다. 신관례는 새벽에 신을 불러 오는 의식으로, 하늘의 계시는 혼을 불러오기 위해 향을 올리고(上香), 땅에 계시는 뉘(뉘)을 부르기 위해 술을 땅에 붓고, 예물인 비단으로 폐백을 올린다. 이 폐백 올리는 절차가 진폐이다. 진찬은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조(組)에 담아 올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천조례라고도 한다. 초헌은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아헌은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종헌은 마지막 즉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칠변두는 술을 세 번 올린 후 왕이 음복위로 나아가서 술을 마시고 위치로 돌아가 사배하면 변(邊)과 두(豆)를 철수한다. 변과 두의 철수는 변과 두, 각한 개를 조금 옮겨 놓는 것으로 대신한다. 송신은 제례를 모두 마치고 신을 돌려보내는 절차다. 송신도 진찬과 칠변두와 마찬가지로 송나라의 제도에 따라 음악만 연주하고 춤은 추지 않는다<sup>27)</sup>. 그러나 현행 종묘대제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거나 의식을 축소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sup>28)</sup>.

## (1) 음악

종묘제례악은 신을 영접하고(迎新), 신에게 폐백을 올리며 세 번에 걸쳐 술잔을 올린 뒤에 제기를 거두어들이고, 신을 배웅하는 순서로 연주 한다<sup>29)</sup>.

26)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pp.83-89.

27)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게서, pp.83-89.

28) 양경숙(2009), 전게서, p.20.

29) 문화재청(2001), 전게서, p.36.

종묘제례악은 속악이지만, 악기편성의 형식은 아악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아악은 등가와 헌가의 두 악대로 연주하고 등가는 노래와 현악기가 중심이고, 헌가는 관악기와 타악기가 중심인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헌가는 신분에 따라 궁현 · 헌현 · 판현 · 특현 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종묘제례악 악기편성의 형식도 이러한 아악의 체제를 따르되 등가와 헌가에 모두 현악기를 편성하고, 도창을 두는 점, 악장가사가 3언 · 4언 · 5언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은 아악의 본래적 형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종묘제례악 악기편성의 특징이다.

조선조 종묘 제례악은 1463년에 보태평과 정대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의 악기편성은 다르다. 또 보태평과 정대업을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sup>30)</sup>.

종묘제례악은 편종, 편경, 방향과 같은 타악기가 주선율이 되고, 여기에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등 현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부가된다. 이 위에 장구, 징, 태평소, 절고, 진고 등의 악기가 더욱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고 노래가 중첩되면서 종묘제례악은 그 어떤 음악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중후함과 화려함을 전해준다.

종묘제례 절차에 따른 종묘제례악의 악곡과 악기를 정리해 보면 종묘제례 중 신을 맞이하는 절차인 신관례에서는 보태평이 연주되며, 악장은 희문이고, 헌가에서 연주되며 편성악기로는 편종, 편경, 방향, 당피리, 대금, 해금, 장구, 진고, 축, 박이 있으며 일무는 보태평지무인 문무를 춘다. 전폐에서는 보태평이 연주되며, 보태평이 연주되고 전폐희문 악장이며, 등가에서 연주되고, 편종, 편경, 방향, 당피리, 대금, 아쟁, 장고, 절고, 축, 박이며 문무를 춘다. 조상신이 즐기는 절차인 진찬에서는 신위가 모셔진 각실에 제상에 제물을 진설하며, 풍안이 연주되고 진찬곡을 부르며 헌가에서 연주되는데 영

30) 국립문화재연구소 편(2008), 전계서, pp.70-71.

신과 같다. 춤은 추지 않는다. 신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예인 초헌례에서는 등가에서 보태평이 연주되며 악장은 회문, 기명, 귀인, 형가, 집녕, 음화, 역성 등을 부르고 편성악기는 편종, 편경, 방향, 당피리, 대금, 아쟁, 장구, 절고, 축, 박으로 전폐와 같으며 문무를 춘다. 신에게 둘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 헌가에서 정대업이 연주되며, 악장으로는 분옹, 순옹, 총유, 정세, 혁정, 영관이 있고, 편성악기로는 영신과 같고 태평소와 대금이 추가 되며, 정대업 지무인 무무를 춘다. 신에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 아헌례와 같이 헌가에서 정대업이 연주되며 정대업지무인 무무를 추고 편성악기도 아헌례와 같으며 악장으로는 분옹 순옹, 총유, 정세, 혁정, 영관을 부른다. 조상신을 보내는 절차인 철변두에서는 제사에 쓰인 제물을 거두어들이며 등가에서 옹악지악이 연주되고 진찬곡을 부르며 일무는 퇴장하여 일무 없이 행해진다. 송신례에서는 헌가에서 홍안지악이 연주되며 진찬곡을 부르고 편성악기로는 영신과 같으며, 일무는 없다.

이상으로 종묘제례 절차에 따른 종묘제례악의 악곡과 악장, 일무, 편성악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종묘제례의 절차에 따른 종묘제례악 악곡, 악장, 일무, 편성 악기

제례 절차	악단	악명	악장	일무	편성악기
영신	헌가	보태평	희문 9성(9회반복)	문무	편종, 편경, 방향, 당피리, 대금, 해금, 장고, 진고, 축, 박
전폐	등가	보태평	전폐희문	문무	편종, 편경, 방향, 당피리, 대금, 아쟁, 장고, 절고, 축, 박
진찬	헌가	풍안지악	진찬곡	없음	영신과 같음
초헌	등가	보태평	화문·기명·귀인·형 가·집녕·융화·현미· 용광정명·증광·대 유·역성	문무	전폐와 같음
아헌	헌가	정대업	소무, 독경, 탁정, 선위, 신정, 분용, 순용, 총유, 정세, 혁정, 영관	무무	편종, 편경, 방향, 당피리, 대금, 해금, 장고, 진고, 축, 박, 태평소, 대금(大金)
종헌	헌가	정대업	아헌과 같음	무무	아헌과 같음
철변두	등가	용안지악	진찬곡	없음	전폐와 같음
송신	헌가	흥안지악	진찬곡	없음	영신과 같음

## (2) 악장(樂章)

종묘제례악 악, 가, 무 가운데 특히 가(악장)는 의례악에서 의례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본질적 기능을 하고, 악과 무는 이를 표상하는 역할을 한다.

악장(樂章)이란 궁중음악의 성악에 쓰이는 가사나 노래 자체를 일컫는 용어로 종묘제례악의 각 악곡에 부르는 노래를 종묘 악장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조선왕조를 개국한 선대왕들의 문덕(文德)과 무공(武功)을 찬양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것과 마찬가지로 4자1구(句), 8구 1장(章)의 정형화된 한시(漢詩)였다. 처음에는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을 담은 회례악(會禮樂)으로 세종(1418~1450)이 직접 만들었으나, 세조(1455~1468)대에 종묘제례악으로 개편 채택되었다. 현행 종묘제례악은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1곡 등 모두 22곡으로 되어<sup>31)</sup>있으며, 종묘제례악 악장은 아악풍의 고정된 형식이 아니고 비교적 불규칙한 한시 형태로 바뀐 것은 본래 제사용이 아닌 회례연(會禮宴)의 악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세조때 세종이 만든 보태평과 정대업 가사의 자구(字句)가 많아서 짧은 제사의식에 다 불리기 어려우므로 이것을 많이 축약하고 그 위에 악장이었던 진찬(進饌), 철변두(徹籩豆), 송신(送神)은 최항(崔沆)이 새로 지어 전체적인 종묘 악장이 고루 갖추어지게 되었다.

보태평 악장은 조종(祖宗)이 나라 운을 열어 찬란한 문치(文治)창성한 내력과 태조의 4대 선왕(목조, 익조, 도조, 환조) 및 태조, 태종의 문덕을 기리는 내용이다, 이들은 신령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때 불리는데 평조(平調)로 되어있다.<sup>32)</sup> 보태평은 “대저 천명을 받기는 쉽지 않으나 덕이 있으면 흥하도다. 높으신 우리 성군님들께서 천명을 받으시어 신령하신 계

31) 한홍섭(2010), 전게서, p.221.

32) 문화재청(2001), 전게서, pp.41-42.

획과 거룩하신 공업이 크게 나타나고 계승되도다. 운수에 응하여서 태평을 이루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만백성을 기르시며, 우리의 뒷 세대를 열어주고 도우시매 억만 대 영원까지 이어가고 이어가리다. 이렇듯 강한 일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마땅히 노래하고 찬양하여 올리리라” 하는 가사로 시작된다. 뒷부분은 종묘 각실에 봉안된 선왕의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보태평의 음악이 연주되면 보태평의 춤을 추고, 정대업이 연주되면 정대업의 춤을 춘다<sup>33)</sup>.

정대업 악장은 “하늘이 우리 조종을 돌보사 이어 무공을 나타내 시도다.”라고 운을 댄 뒤 역시 선대왕들이 외적과 맞서 공을 세운 무공을 호기 넘치는 시어로 칭송하고 있다. 아현례와 종헌례 때 불리는데 계면조(界面調)로 되어있다<sup>34)</sup>. 종묘악장은 웅장하면서도 미려한 한문체로 작성되어 우리나라 한문학의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sup>35)</sup>.

### (3) 일무

일무(佾舞)란 궁중의 제례의식에 추는 춤을 일컫는데 일무의 ‘일(佾)’은 줄을 의미하며 중중이 열(列)을 지어 추는 춤을 의미한다<sup>36)</sup>. 춘추좌전(春秋左前)에 의하면 주인공의 신분에 따라 8일무, 6일무, 4일무, 2일무, 등이 추어지는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2가지 설(設)이 있다.

하나는 진(晉)나라 두예(杜預)의 이론으로 각 열과 행의 인원수가 같아 팔일무는 64명(8열8행), 육일무는 36(6열6행), 사일무는 16명(4열4행), 이일무는 4명(2열2행)이라는 주장이고, 반면에 후한(後漢)의 복건(服虔)은 각 열이 8행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팔일무는 64명, 육일무는 48명(6열8행), 사일무

33) 신명호(2002), 전게서, pp.249-250.

34) 문화재청(2001), 전게서. pp.41-42.

35) 상계서 p.41.

36)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게서, p.150.

는 32명(4열8행), 이일무는 16명(3열8행)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전자(前者)의 학설을 따르고 있는데 고려 예종11년(1116)6월 중국으로부터 아악이 들어올 때 문무와 무무에 필요한 옷과 장식을 각 36건씩 일습을 들여와 제사에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일무는 세종 때 회례악무로 창작되었고 세조 때 종묘에 가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문무(文舞)인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와 무무(武舞)인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가 있다.

절차에 따라 보태평을 연주하면 악장은 조상의 문덕(文德)을 찬양하는 평조의 노래 11곡을 부르고 춤은 정적(靜的)이면서 부드럽게 추는 문인(文人) 취향의 문무(文舞)를 춘다. 정대업을 연주하면 악장은 조상의 무공(武功)을 찬양하는 계면조(界面調)의 노래 11곡을 부르고 춤은 강하게 힘차게 추는 무인(武人) 성격의 무무(巫舞)를 춘다. 문무에서는 오른손에 적(鐃), 왼손에 약(籥)을 들고, 무무에서는 일부는 목검(木劍)을 들고 그 나머지는 목창(木廠)을 들고 춘다. 가로 세로 8명씩 64명이 추는 팔일무는 그 춤동작이 매우 단순하고 절도가 있어, 제례 의식을 한층 더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만든다<sup>37)</sup>. 이들은 각각 손에 드는 의장물이나 춤의 동작이 바뀌고 상징적인 의미도 다르다.

제례의식의 영신례 · 전폐례 · 초헌례에는 문무가 추어지며, 아헌례와 종헌례에는 무무가 추어진다<sup>38)</sup>.

종묘제례가 거행되는 종묘 공간에 은근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인간의 숨씨를 최대한 절제한 무용이 펼쳐지면, 조상신과 후손이 강한 영적인 교감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음악, 노래, 춤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묘제례악은 하늘, 땅, 사람의 삼재가 혼연일체가 되어 표현되는 종합예술이다. 더욱이 종묘제례악은 하늘과 땅의 운행과 우주의 질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9)</sup>.

37) 한홍섭(2010), 전계서, p.222.

38)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계서, p.152.

39) 문화재청(2001), 전계서, pp.46-47.

#### 4) 종묘제례악의 전승 현황

종묘제례악이 열리는 시기는 오향제라 하여 사계절의 맹월인 1월, 4월, 7월, 10월의 상순과 납일(동지 후 세 번째 미일을 말한, 조선의 태조 이전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을 납일로 정했었다)의 다섯 차례의 종묘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거행<sup>40)</sup>되었고, 이외에도 특별히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신령께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sup>41)</sup> 행해졌다. 하지만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주관이 되어 종묘대제를 부활시켜 1970년부터는 매해 5월 첫 일요일에 종묘에서 봉행(奉行)하고 있다<sup>42)</sup>.

대한민국 수립 이후 종묘제례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맡았으며, 제례악은 국립국악원이, 그리고 일무는 국립국악고등학교가 봉행하여 왔다. 현재는 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보존회에서 맡고, 일무는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일무보존회에서 맡고 있으며, 제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6호 종묘제례보존회에서 각각 맡아 종묘대제(宗廟大祭)로 봉행하고 있다<sup>43)</sup>

현재 보유자가 1인, 전수교육조교 6인, 이수자 171인, 전수생 218명이 종묘제례보존회를 중심으로 종묘제례악을 지켜내고 있다. 전수교육조교를 비롯한 대부분은 각각의 전공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주자들이다. 이들은 개인이 혹은 단체가 정기적으로 종묘제례악 연주 활동을 활발히 하여 종묘제례악의 보존과 전승에 힘을 쓰고 있다<sup>44)</sup>. 1년에 한 번 종묘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악 이외에도 종묘제례악은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상설 공연을 연회장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재청과 종묘제례악보존회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지키고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근에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 종묘 재궁에서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이라는

40) 이송이(2011), 종묘제례악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41) 신명호(2002), 전계서, p.251.

42) 서한범(1997), 전계서, p.143.

43)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계서, p.154.

44) 상계서, p.278.

제목으로 종묘제례악을 악식 형태로 보여주며 해설을 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현행 연주되고 있는 종묘제례악은 19세기 이후 변화를 겪기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그 이전 시기의 것과 많이 달라졌다. 거문고와 가야금, 향비파 등의 현악기는 모두 제외되었고, 박절 구조 또한 달라졌다. 악장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변질된 것을 다시 회복시켰지만 악현과 박절구조의 변화는 원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sup>45)</sup>.

가의 악장은 악사들의 구음으로 전해왔고, 현재 전승되는 악장은 이수경(1882~1955)이 전승한 것이다. 세조실록 이후 모든 종묘제례악 악보에 별도의 악장 악보가 없었으나 이왕직 아악부 때의 필사본 악보인 제례주악의주에 처음으로 악장 악보가 별도로 기보되어 있다. 이 악보는 현행 정간보로 넘어도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이지만, 악장의 선율은 현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는 악장의 가사 중 일부의 내용이 조선 왕실을 격하하거나 대마도 정벌을 은폐하는 식으로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본래의 가사로 환원하여 부르고 있다. <sup>46)</sup>

무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현재의 무는 모든 예는 황제의 예에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무는 팔일무로 64명이 추고, 의물로는 보태평의 춤에는 약과 적을 들고, 정대업의 춤에는 앞의 4줄은 검을 들고 뒤의 4줄은 창을 들고 추었다. <sup>47)</sup> 현재 전승되는 종묘제례악은 유교적 색채가 강하면서도 중국의 음악과 달리 한국인의 미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sup>48)</sup>.

---

45) 전계서, p.66.

46) 상계서, p.111.

47) 상계서, p.160.

48) 문화재청(2001), 전계서, p.36.

## 2. 문헌에 따른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종묘제례악의 연주 복식은 연주자에 따라 다르다<sup>49)</sup>. 종묘제례악 연주자의 종류는 종묘제례악을 감독하는 집사악사, 집박(執拍)을 하여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악사,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 노래를 하는 도창(導唱) 악사, 보태명일무와 정대업일무를 추는 일무 악공이 있다. 집사악사는 악관직(樂官職)의 하나로 나라의 제향이나 큰 잔치가 있을 때 등가(登歌)에서 예를 진행시에는 집사겨에 홀(笏)을 들고 서며<sup>50)</sup>, 문무백관들과 마찬가지로 흑단령의 관복을 갖추어 입어 악인 복식의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도창을 하는 악사는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에서는 도창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등가·헌가의 악공으로 같이 분류되어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악공의 복식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는 「악학궤범」의 종묘제례악은 진설한 부분을 보면, 전체 악인들의 위치가 나타나져 있으며 그 옆에는 악사의 인원, 악공의 인원이 적혀있어 노래를 담당하는 도창이 악공으로 포함되어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복식 분석을 위한 종묘제례악 악인 분류는 <표 2>과 같다.

---

49)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게서, p.245.

50) 김정실(2003), 전게서, p.55.

<표 2> 종묘제례악의 악인 분류

분류	담당	복식	비고
집사 악사	종묘제례악의 지휘, 감독	악관직으로 관복을 착용하는 악인	연구 제외
집박 악사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림	악사의 복식 착용	악사 복식
악공	악기 연주	악공의 복식 착용	악공 복식
도창 악사	노래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과 함께 악공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복식 착용	악공 복식
일부 악공	춤	일부 악공의 복식을 착용	일부 악공 복식

종묘제례악 연주복식은 15세기의 「국조오례의」·「악학궤범」, 17~19세기의 「종묘의궤」·「증보문헌비고」, 19세기 말 「조선악개요」의 기록에 의해 살펴 볼 수 있으며, 이 중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조선악개요」에는 복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형태도 기록되어 있어 시기별 종묘제례악 복식 파악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앞의 3가지 조선시대 문헌에 근거하여 종묘제례악 악인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조선왕조 성종(1469~1494) 때 출간된 악서 「악학궤범」은 조선 초기 궁중 공연예술의 총 집합체이며, 조선시대 음악의 유일한 지침이 된 악전(樂典)으로 조선시대에도 중요시된 문헌이었다<sup>51)</sup>. 「악학궤범」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음악학계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용학과 국문학계 및 복식학과 의물학계에서 중요시되고 있다<sup>52)</sup>.

51) 안확(2008), 조선음악의 연구, 보고서, p.320.

「악학궤범」은 총 9권으로 되어 있으며, 권2에는 종묘제례악의 진설(陳設)이 도설(圖說)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악사, 악공, 일무악공의 복식이 적혀있어 악인 복식 구성을 알 수 있다. 권8과 권9는 정재에 쓰이는 의물·무구(舞具)와 악사(樂師)·악공(樂工)들의 관복을 그림과 함께 치수까지 적어 놓아 오늘날에도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sup>53)</sup>.

### (1) 악사 복식

악학궤범 당시 속부(종묘) 제례악 악사의 연주복은 복두(幘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鞞帶) · 흑피화(黑皮靴)로 구성되어 있다.

복두(그림 1)는 종이를 배접하여서 만들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고 검은 칠을 하며 각(角)이 있다<sup>54)</sup>. 도면으로 본 복두는 각(脚)의 형태가 가늘고 끝이 둥글며, 전체적으로 검게 채색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악인들이 착용한 복두에 대해서 살펴보면, 송사(宋史) 악지(樂志)에서는 '임금이 친(親)히 사(祠)하시는 궁가(宮歌)의 제(制)에서 무색장(舞色長)은 복두(幘頭)를 쓴다.'고 하였고, 원사(元史) 악지(樂志)에서는 '악정(樂正)이 복두착용(幘頭着用)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악인들의 복두착용 모습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살필 수 있으며, 세종 14년 세종실록에서 보며 중국의 예(禮)에 의하여 악공(樂工)의 관복(冠服)을 조금 변경하여 제정(制定)하기로 건의하고 있다<sup>55)</sup>하여 조선시대 악인의 복두 착용에 대한 시초를 알 수 있다. 복두(幘頭)는 관건(冠巾)의 일종(一種)으로 공복(公服)에 착용(着用)하는 것으로 상건(上市)또는 절상건(折上市)이고, 복건(幅巾)으로 머리를 복발

52) 송방송(2010), 악학궤범 용어총람, 보고서, p.143

53) 김미영(2009), '악학궤범' 당악정재의 규칙성과 사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8.

54) 송방송(2010), 전게서, p.77.

55) 장영수(1983), 악학궤범에 나타난 악인 복식의 소원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3-34.

(幘髮)하기 때문에 복두(幘頭)라고 한다.<sup>56)</sup> 송사의 복두는 가죽으로 만들었으나, 조선의 복두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었다. 악학궤범에 있는 복두(幘頭)는 모라복두(冒羅幘頭)로 이는 전악(典樂)이 쓰는 것이고, 악공이 착용하는 것은 화화복두(畫花幘頭)가 있다. 악학궤범에 있는 모라복두는 평각(平脚)인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 송대(宋代)의 것을 모방하여 조선조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57)</sup>. 고려의 복두 제작은 주로 사(紗)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sup>58)</sup>, 고려의 복두 제작 재료를 따라 악학궤범의 악사가 착용한 복두는 모라(冒羅)복두라고 하여 모라(冒羅)라는 넓고 가는 견직물인 사(紗)를 이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녹초삼(綠綃衫)(그림 2)은 녹색 초단(綃緞)으로 꿰매 만든다<sup>59)</sup>. 녹초삼은 깃이 둥근 단령(團領)이며 소매가 상당히 크고 넓다<sup>60)</sup>. 무는 길에 붙어 재단되어 있다. 도면을 보면 소매의 수구부분에 천이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며, 치수가 표기되어 있다. 표기된 치수는 소매가 전폭(全幅)의 반이고, 1자 4치이며, 전체의 길이는 3자 1치, 허리의 폭은 1자 5치로 치수를 표기하여 제작에 용이하게 하였다.(1자=약30.30cm, 1치=1/10자)

녹초삼은 ‘단령(團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령의 정의와, 단령을 착용하였던 기록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단령(團領)’이란 용어의 정의는 둥근 깃의 의미와, 상복(常服)(공복(公服), 시복(時服))의 포제의 의미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단령의 깃을 형태어(形態語)<sup>61)</sup>로 보고, 녹초삼을 둥근 깃에 따라 단령이라고 한다.

일반복식에서 단령(團領)의 소원(溯源)에 대해 살펴보면, 당(唐)나라에서 무덕(武德) 9년 11월에 오사모(烏紗帽)를 천자(天子)의 복(服)으로 착용하게 되

56) 고광립(1980), 복두, 공복에 관한 연구(인천: 인천교대 논문집<15집> 1980), p.43.

57) 상계서, pp.35-36.

58) 박용운(2005), 고려시기의 복두와 복두소, 한국사학보 제 19호, 1229-6353, p.29.

59) 성현 저, 립정권 역주(1956), 악학궤범, 아람출판공사, p.592.

60) 장영수(1983), 전계서, p.108.

61) 최은수(2005),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

있는데 오사모는 단령과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단령의 시원을 알 수 있으며<sup>62)</sup>, 악인복에서의 단령은 송사(宋史) 악지(樂志)에 단령인 공복(公服)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朝鮮朝) 악인들도 단령을 착용하였는데 그의 모습은 악학계범에 있는 흑단령(黑團領) · 홍녹주의(紅綠紬衣) · 남주의(藍紬衣) · 비란삼(緋鸞衫) · 홍초삼(紅綃衫)등이며 옷깃이 둥근 형태를 모두 단령(團領)이라 생각한다.’<sup>63)</sup>는 선행 연구로 미루어 보아 악인복의 단령은 둥근 깃의 의미와 상복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녹초삼은 홍초삼의 제도와 같고<sup>64)</sup>, 녹초삼은 악인복의 단령에 포함된다.

오정대(烏鞞帶)(그림 3)는 검은 혁대(革帶)로 생우피(生牛皮), 얇은 단판(段板), 동사(銅絲)와 두석(豆錫)으로 만들며<sup>65)</sup>, 나무로 갈고리를 만들고 검은 칠을 하여 만들었다<sup>66)</sup>. 도면으로 보면 오정대의 갈고리 반대 부분이 검정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이 부분에 동사와 두석이 붙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대(帶)를 크게 나누어 볼 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복(公服), 조복(朝服), 제복(祭服) 등에 사용되던 각대류(角帶類)로 금(金), 은(銀), 각(角), 옥(玉) 등이 재료(材料)로 쓰였으며 또 하나는 조아류(條兒類)로 고려대 사대(絲帶)라고 불리웠으며<sup>67)</sup>, 실을 꼬아 만든 대이다. 오정대는 혁대(革帶)에 과(鈔)를 붙여 장식한 각대류로 볼 수 있고, 과(鈔)는 과판(鈔板) · 대금구(帶金具) · 띠꾸미개이며, 대(帶)를 장식하는 하나하나를 가르킨다. <sup>68)</sup>

흑피화(黑皮靴)(그림 4)라는 도면으로 보이는 흑피화는 앞코가 살짝 위로 들린 모양이고 화의 윗부분은 앞쪽이 뒤쪽 보다 길다. 상대(上代)의 신은 화

62) 장영수(1983), 전계서, p.93.

63) 상계서, p.96.

64) 장사훈(1985). 악복과 무복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특히 악학계범과 각종 진연의례를 중심으로, 동양음악7권, pp.9.

65) 상계서, p.91.

66) 성현 저, 립정권 역주(1956), 전계서, p.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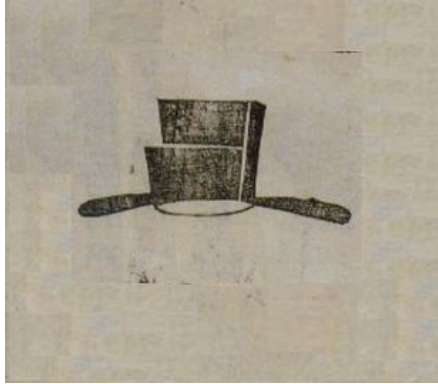
67) 박수자(1967), 대의 변천에 관한 소고, 가정 1권15호, pp.100-101.

68) 김은주·김문자(1998), 삼국시대 과대의 영식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호,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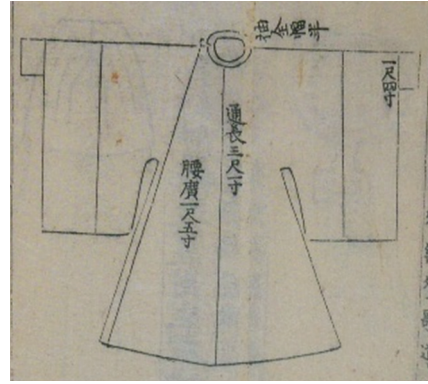
(靴)와 리(履)의 두 종류가 있으며, 조선에서는 화를 신분의 상하(上下) 구별 없이 착용(着用)하였다. 그 일례(一例)로 세종8년의 세종실록에 신발에 대한 제도(制度)가 아직 제정(制定)되지 않아 시장의 공인(工人) 상인(商人)과 사천(私賤)까지 가죽신을 신어 그에 대한 금제(禁制)를 내렸으며, 무공(武工)과 악공 중(樂工 中)에서 7품 이하(7品 以下)는 음악을 연주(演奏)할 때 이외에는 가죽신을 신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 나타나 악인(樂人)들의 화(靴) 착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연주할 때만 가죽신을 신게 했으며 평상시에는 신는 것을 금했다는 금제(禁制)가 세종실록에 나타나 있다<sup>69)</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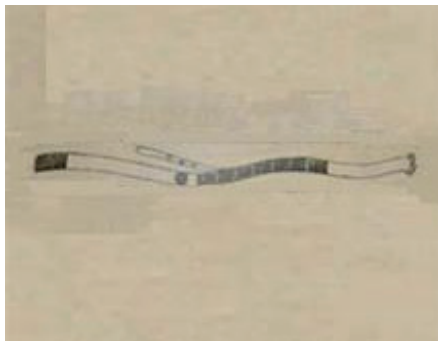
69) 장영수(1983), 전계서, pp.127-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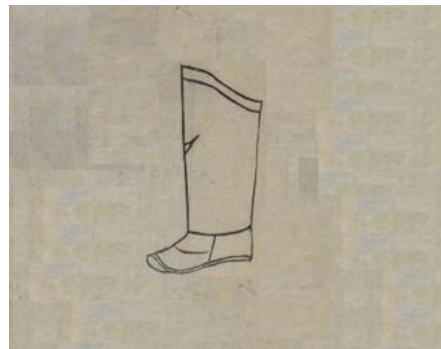
<그림 1> 약사의 복두-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1.)



<그림 2> 약사의 녹초삼-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3.)



<그림 3> 약사의 오정대-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8)



<그림 4 > 약사의 흑피화-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9)

## (2) 악공 복식

악공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인이며, 종묘제례악 악공으로는 노래를 하는 도창이 포함되어 있다. 악학궤범 당시 종묘제례악 등가, 헌가 악공의 복식은 개적(介幘) · 비란삼(緋鸞衫) · 백주중단(白紬中單) · 백주말대(白紬抹帶) · 백포말(白布襪) · 오피리(烏皮履)로 구성되어 있다.<sup>70)</sup> 이는 악학궤범 2권 속 악진설도설(俗樂陳設圖說)에 오례의(五禮儀)의 종묘 · 영녕전 등가 도설에 ‘악공36인 개적, 비란삼, 백주중단, 백주말대, 백포말, 오피리’를 착용한다 하였고, 다음 성종조도 악공의 관복도 같다고 나타나 있으며, 등가 · 헌가의 악공의 복식은 같다.

개적(介幘)(그림 5)은 성종(1469~1494) 때 등가와 헌가에 참여한 악생(樂生)의 모자이다. 개적은 송나라 제도는 가죽으로 만들고 그 장식에는 검은 칠을 했으나, 지금 제도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테두리에는 철사를 넣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며, 검은 칠을 한다. 그리고 자황(雌黃: 유황·비소의 화합물로 만든 고운 황색)으로 가늘게 그림을 그리며, 청색 명주 끈을 단다<sup>71)</sup>. 도면으로 본 개적은 개적 아래로 끈이 달려 묶여있는 모양이고, 검게 채색되어 있다.

개적의 착용에 대해 알아보면 개적(介幘)은 책이(幘耳)가 삼각모양으로 높게 올라간 형태로서 수(隋)에서는 원유관과 진현관과 병행해서 사용했다. 개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수서(隋書)에 기록이 있으며 원사(元史) 악지(樂志), 명사(明史) 악지(樂志)에도 나타나 있어 개적 착용 모습을 알 수 있으며,<sup>72)</sup> 조선 악인의 개적 착용은 송(宋) · 원(元) · 명(明)을 거쳐 영향을 받았다.

비란삼(緋鸞衫)(그림 6)은 난삼(鸞衫)은 홍색 명주로 껴매 만들고, 난봉(難

70)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계서, pp.247-248.

71) 성현 저, 립정권 역주(1956), 전계서, p.586.

72) 장영수(1983), 전계서, pp.40-41.

捧)을 앞·뒤 면과 좌·우 쪽 어깨에 그려 흉배(胸背) 모양과 같이 한다.<sup>73)</sup>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란삼의 형태는 단령 깃이며, 소매가 넓은 두리소매이고, 무가 달려 있고, 가슴과 양 어깨에 난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 끝부분을 보면 악사의 녹초삼처럼 천이 덧붙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高麗) 광종조에 실시된 과거제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며 그 형태는 송·원예대부터 내려오는 형태의 것으로 둥근 깃에 소매는 크고 4.5치 넓이의 연(緣)을 하고 주름이 없는 형태로서, 정착 시기는 조선초로 생각된다. 세종실록에 난삼에 대하여 송(宋)에서는 비란삼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오승포의(五升袍衣)를 쓰고 있으므로 그 제도(制度)가 추악하고 체제가 적삼의 제도(制度)가 아니므로 송조(宋朝) 묘악(廟樂)의 제도에 의하여 난삼(鸞衫)을 쓰되 오승(五升)명주를 쓰게 청하는 기록이 있어 조선의 난삼이 송제(宋制)를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74)</sup>.

백주중단(白紬中單)(그림 7)은 성종 때 종묘와 영녕전의 제사 때 악공이 입는 관복이다. 중단은 다듬은 백주(白紬: 흰색 명주)를 꿰매어 만들며, 흑주(黑紬: 흑색 명주)로 단(端)을 댈다<sup>75)</sup>. 깃 모양은 의복의 깃 양식에서의 직령(直領)으로 ‘둥근 깃’에 대칭되는 표현어로서 ‘곧은 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sup>76)</sup> 도면을 보면 깃은 직령이고, 단과 소매부리에 채색이 되어 있어 채색된 부분은 유색 단을 댄 것이며, 무가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단(中單)은 중의(中衣)를 말하며 백색(白色)이고, 상대(上代)에는 심의(深衣)라 했다. 상대(上代)에 조복(朝服) 제복(祭服)의 안에 입던 상의하상(上衣下裳)이 연속된 심의(深衣)를 고대(古代)에 이르러 중의(속옷)일 경우 허리를 꿰매지 않고 입었는데 이를 일컬어 중단(中單)이라 했다<sup>77)</sup>하여 중단 착

73) 성현 저, 립정권 역주(1956), 전계서, p.593

74) 장영수(1983), 전계서, pp.105-108.

75) 송방송(2010), 전계서, p.136.

76) 이주영(2001), 조선시대 직령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

77) 장영수(1983), 전계서, p.109.

용의 시초를 알 수 있다. 악인들의 중단 착용에 대해서는 명사(明史) 여복지(輿服志)에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악인의 백주중단은 악학계범 형태의 것으로 중단의 깃에 문양을 수놓지 않은 것이고, 중단의 깃에 불문(黻文)이 있는 것은 면복(冕服)에 사용되는 중단이다.

백주말대(白紬抹帶)(그림 8)을 비란삼 위에 띠다. 악인이 백주말대를 착용한 예(例)로는 송사(宋史), 원사(元史)의 악지(樂志)에 기록되어 있어 백주말대의 착용을 알 수 있으며, 원사에서는 누런색(色)의 말대(抹帶)를 사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에도 송사(宋史)를 모방한 말대(抹帶)착용이 기록되어 있다.<sup>78)</sup> 따라서 악인의 백주말대 착용을 알아 볼 수 있다.

백포말(白布襪)(그림 9)은 성종 대 종묘와 영녕전의 제사에 악공이 신었던 버선이다.<sup>79)</sup> 버선(襪)은 흰 베로 꿰매 만들고 안은 세포(細布)로 댄다.<sup>80)</sup>

오피리(烏皮履)(그림 10)는 성종(1469~1494)때 종묘와 영녕전의 제사 때 악공이 신었던 신의 일종이다<sup>81)</sup>. 리(履)는 상대(上代)의 신이며 이는 남방족(南方族)이 흔히 신는 신으로서 운두(雲頭)가 낮은 단요(短鞣)모양이다. 오피리 착용은 송사(宋史), 원사(元史) 악지에도 기록이 보이고 있다<sup>82)</sup>. 오피리(履)는 흑색 가죽으로 만들고 끈이 있다<sup>83)</sup>. 도면의 오피리로 보아 앞 코에는 운문이 그려져 있으며, 발등에서 끈을 묶을 수 있도록 리의 양옆에 끈을 단 것을 알 수 있다.

---

78) 장영수(1983), 전계서, pp.8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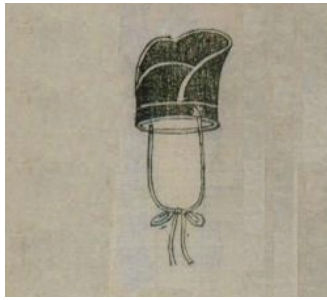
79) 송방송(2010), 전계서, p.138.

80) 성현 저, 립정권 역주(1956), 전계서, p.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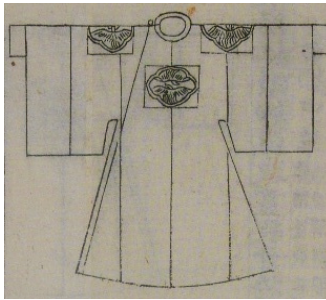
81) 송방송(2010), 전계서, pp.239-240.

82) 장영수(1983), 전계서,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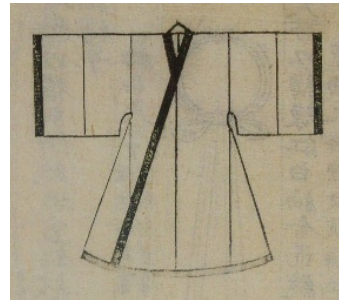
83) 성현 저, 립정권 역주(1956), 전계서, p.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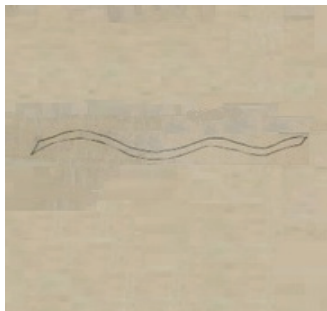
<그림 5> 악공의 개적-악  
학괘범  
(출처 : 악학괘범 9권 p.6)



<그림 6> 악공의 비란삼-  
악학괘범  
(출처 : 악학괘범 9권 p.7)



<그림 7> 악공의 백주중단  
-악학괘범  
(출처 : 악학괘범 9권 p.7)



<그림 8> 악공의 백주말대  
-악학괘범  
(출처 : 악학괘범 9권 p.8)



<그림 9> 악공의 백포말-  
악학괘범  
(출처 : 악학괘범 9권 p.8)



그림 10 악공의 오피리-  
악학괘범  
(출처 : 악학괘범 9권 p.9)

### (3) 일무 악공 복식

#### ① 보태평일무(문무) 악공 복식

악학궤범 2권에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 악공 복식이 나타나 있으며, 보태평 일무 악공 복식으로 악공38인 중 춤36인, 독2인은 모두 진현관을 쓰고 남주의(藍紬衣)에 적상조연(赤裳皂緣, 검은 선을 두른 적상(赤裳))을 입고, 적말대(赤抹帶, 붉은 빛갈의 허리띠)를 띠고, 백포말에 오피리를 신는다<sup>84)</sup>고 나타나 있다.

진현관(進賢冠)(그림 11)은 조선시대 속악의 문무 중에서 종묘·영녕전의 보태평 춤을 추는 악공과 독 잡이가 썼던 관으로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만들며 테두리에는 철사를 쓰고, 안과 전면에 고운 베를 바르며, 겉에는 검은 칠을 하고 모자 전면에 고운 황색(黃色)으로 곱게 선을 그리며 청색 명주 끈을 단다.<sup>85)</sup> 진현관의 도면으로 보아 검게 채색이 되어 있으며, 진현관에 양옆에 끈을 달아 턱 아래에서 묶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문헌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모자 전면에 고운 황색으로 선을 그렸는지는 확연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악인복(樂人服)에서의 진현관 착용은 세종 15년(1433) 3월에 문무의 관은 종이를 붙여서 만들되 두 조각을 연결하여 쓰므로 이마가 덮이지 않아 춤추는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으니 진현관으로 고쳐 쓰게 하였다고<sup>86)</sup> 세종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진현관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주의(藍紬衣)(그림 12)는 남색 명주로 만든 겉옷으로 단령 깃이고, 소매가 좁은 착수(窄袖)이며, 수구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형태의 직배래로 보이며, 무가 붙어있다. 남주의는 비란삼, 녹초삼 착용과 마찬가지로 단령으로 보아 그 착용을 알아 볼 수 있다.

84) 이혜구 역주(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p.115.

85) 김영숙(1998), 전계서, p.349.

86) 상계서, p.349.

적상(赤裳)(그림 13)은 조선시대 무복(舞服)의 하나로 문무·무무와 의물을 잡는 공인(工人)이 입는 치마이다. 홍색 명주로 만들고 검은 선(襖)을 댈다. 보태평 춤의 악공 38인과 정대업 춤의 악공 71인은 남빛 명주 의(衣)에 검은 선을 두른 붉은 치마를 입었다<sup>87)</sup>. <그림 13>의 악학궤범의 적상 도면을 보면 양옆에 묶을 수 있는 끈을 달았으며 상의 가장자리와 중심으로 검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검은 선(選)을 두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허리를 따라 아래로 줄무늬가 많이 보이는데 이로 적상의 주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악인들의 착용한 적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송사(宋史) 악지에 악인들이 조복(朝服)에 사용되는 의식용(儀式用)의 상(裳)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8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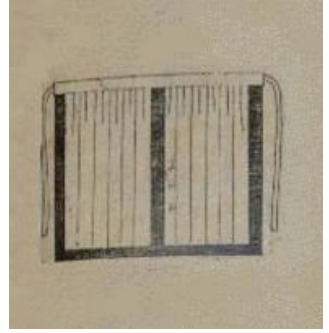
보태평 일무 악공들은 붉은 색의 띠인 적말대(赤抹帶)(그림 14)를 띠었으며 적말대와 백주말대는 명주로 꿰매 만드는 제도법이 같고, 적말대는 붉은색의 명주로 만들며, 백주말대는 백색의 명주로 만든다. 따라서 <그림 14>의 적말대의 도면은 악학궤범 악공 복식의 백주말대와 같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과 같이 백포로 만든 백포말(그림 15)을 신고, 오피리(그림 16)를 신었다.

---

87) 김영숙(1998), 전계서, p.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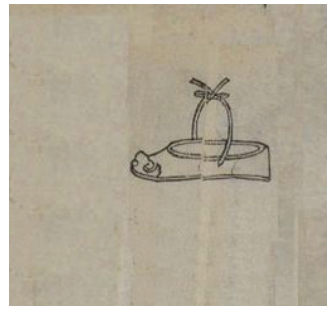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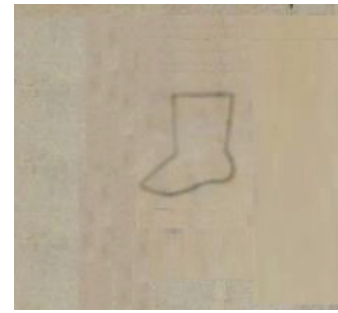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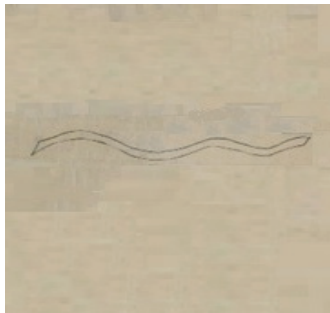
88) 장영수(1983), 전계서, p.65.



<그림 11> 보태평일무 악공의 남주의-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5)

<그림 12> 보태평일무 악공의 남주의-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6)

<그림 13> 보태평일무 악공의 적상-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9권 p.6)



<그림 14> 보태평일무 악공의 적말대-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8)

<그림 15> 보태평일무 악공의 백포말-백포말  
(출처 : 악학궤범 9권 p.8)

<그림 16> 보태평일무 악공의 오피리-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9권 p.9)

## ② 정대업일무(무무) 악공 복식

악학궤범에 나타난 종묘제례악 정대업지무의 악공 71인은 모두 피변(皮弁)을 쓰고, 관복은 보태평 춤의 관복과 같이 한다<sup>89)</sup>고 나타나 있어 당시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피면(皮弁) · 남주의(藍紬衣) · 적상(赤裳) · 적말대(赤抹帶) · 백포말(白布襪) · 오피리(烏皮履)로 구성되어 있다.

피변(皮弁)(그림 17)은 조선시대 무동복식의 하나로 아악의 무무공인(武舞工人)과 속악의 무무 및 의물(儀物)을 잡는 공인이 쓰던 관모(冠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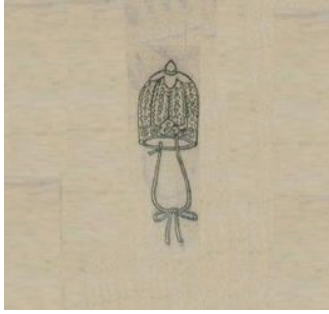
악학궤범에서 그 제도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옷칠한 베로 꺾데기를 만들었으나, 조선 초 제도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며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고 검은 칠을 하고 밖에는 얼룩노루 가죽 같은 털가죽의 형상을 그리며 좌우에는 구리 운월아(雲月兒)를 붙이고 청색 명주 끈을 달아 만든다고 하였다<sup>90)</sup>. 악학궤범에 나타나 있는 설명과 함께 <그림 17>의 도면을 보면 피변 겉은 가죽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으며, 가장 위부분에는 동그란 장식을 대었고, 이마부분의 장식에 운월아가 보이며, 착용 후 얼굴 아래에서 묶을 수 있도록 양 옆으로 끈이 달려있다. 피변은 고려인(高麗人)들의 착용 모습으로부터 착용을 알 수 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의하면 세종 15년에 그 이전(以前)의 평면(平冕)대신에 사용하기로 한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 사용 모습을 알 수 있다.<sup>91)</sup>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 남주의(그림 18), 적상(그림 19), 적말대(그림 20), 백포말(그림 21), 오피리(그림 22)의 도면은 보태평일무 악공의 복식과 같다.

89) 이해구 역주(2000), 전계서, p.116.

90) 성현 외, 민족문화추진회 역주,(1985), 국역악학궤범,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p.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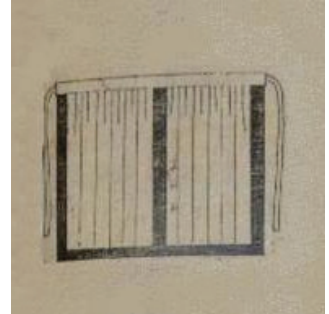
91) 장영수(1983), 전계서,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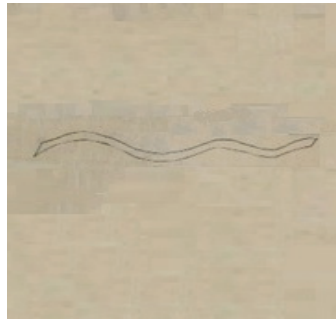
<그림 17> 정대업일무 악공의 피변-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2)



<그림 18> 정대업일무 악공의 남주의-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6)



<그림 19> 정대업일무 악공의 적상-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9권 p.6)



<그림 20> 정대업일무 악공의 적말대-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8)



<그림 21> 정대업일무 악공의 백포말-백포말  
(출처 : 악학궤범 9권 p.8)




















<그림 22> 정대업일무 악공의 오피리-악학궤범  
(출처 : 악학궤범 9권 p.9)

「악학궤범」에서 악인의 복식을 살펴보면 악사는 복두를 쓰고, 녹초삼을 착용하며, 오정대를 띠고 흑피화를 신는다. 악공은 개적을 쓰고, 비란삼, 백주중단을 착용하며 백주말대를 띠고 백포말과, 오피리를 신는다.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은 진현관을 쓰고, 남주의, 적상을 착용하며 적말대를 띠고 백포말과 오피리를 신는다.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피변을 쓰며, 나머지 복식은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과 같다. 보태평과 정대업 일무 악공과 악공의 백포말과 오피리는 같으며, 악공이 띠는 백주말대는 일무 악공의 적말대와 제도법이 같은 말대로 백색과 적색의 차이점이 있다.

이상 「악학궤범」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을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악학궤범」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구 성	악사	악공	일부 악공	
			보태평 일부	정대엽 일부
두 식				
	복두	개적	진현관	피변
외 의				
	녹초삼	비란삼	남주의	
중 의	-		-	
	-	백주중단	-	
하 의	-	-		
	-	-	적상	
대 대				
	오정대	백주말대	적말대	
내 의	-			
	-	백포말	백포말	
신 발				
	흑피화	오피리	오피리	

## 2) 「종묘의궤(宗廟儀軌)」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종묘의궤」는 숙종 23년(1697)에 만들어 졌으며, 조선조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책으로, 원집은 4책, 속록 5책 총 9책이며, 필사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묘의궤」는 조선 초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종묘에 관한 의례를 바탕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여러 등록 및 제가의 문집 등에서 관련 부분을 채록한 것이다. 이 중 제 1책에는 종묘와 영녕전의 전도와 함께 설찬, 등가, 헌가, 문무, 무무, 제기, 악기, 면복, 관복 등의 그림과 해설이 수록되어 있고, 각종 도식에 대한 해설은 국조오례의 이외에 주례, 진씨악서, 문헌통고 등의 문헌을 참고하고 있다. 종묘제도와 의식절차와 관련 행사와 증축과정 등을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인조대 이후 14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sup>92)</sup>

「종묘의궤」의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 구성은 등가 · 헌가 · 문무 도설에 나타나 있으며, 공인관복도설에는 착용하는 복식을 각 부문별로 그려놓고 설명하고 있다.

### (1) 악사 복식

악사 연주복은 복두(幘頭) · 녹초삼(綠綃衫) · 오정대(烏正帶) · 흑피화(黑皮靴)로 구성되어 있고, 「악학궤범」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화된 점이 없다<sup>93)</sup>. 악사의 복식은 「악학궤범」에서 보이고 있는 복식 구성이 「종묘의궤」 시기까지 이어졌다.

복두(幘頭)(그림 23)의 제도법은 「악학궤범」의 제도법과 같다. 종이를 배

92) 한국고전번역원(2009), 종묘의궤1, 김영사, p.39.

93) 종묘제례악(2008), 전계서, p.248.

접하여 만들며, 안은 가는 베를 바르고, 흑색 칠을 한다. 도면의 복두는 채색이 되어 있지 않으며, 각(脚)은 얇고 길며, 끝이 뾰족한 모양을 보인다.

녹초삼(綠綃衫)(그림 24)은 녹초로 꿰매서 만들며, 도면에는 「악학궤범」의 녹초삼과 마찬가지로 소매의 길이 · 전체의 길이 · 허리의 폭이 표기되어 있다. 표기되어 있는 치수는 「악학궤범」의 치수와 같다. 녹초삼은 깃이 단령(團領)이고, 소매는 크고 넓으며, 소매 수구부분에 천이 덧붙여있는 형태를 보이고, 배래부분은 둥글게 표현되어 있으며,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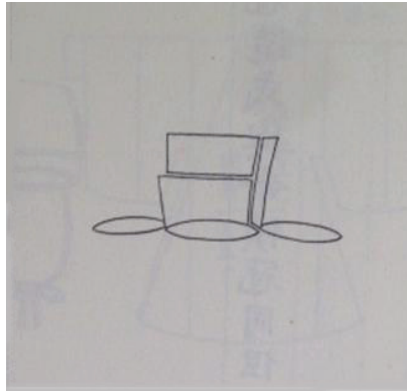
오정대(烏鞞帶)(그림 25)는 검은 가죽 혁대이며, 나무로 갈고리를 만들고 흑색 칠을 하여 만든다.<sup>94)</sup> 책에 설명된 제도법은 「악학궤범」과 같다. 도면은 채색되어 있지 않고, 형태는 「악학궤범」의 오정대와 채색부분만 다르고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장식으로 붙여진 과판의 개수와 모양이 「악학궤범」의 것과 같다.

흑피화(黑皮靴)(그림 26)는 흑색 가죽으로 만들며 악사가 신는 현재도 착용한다.<sup>95)</sup> 종묘의궤의 흑피화 도면은 악학궤범의 흑피화 도면과 매우 흡사하다. 흑피화의 형태는 신의 앞 코가 살짝 들려 있고, 착용했을 때 신의 길이가 다리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길게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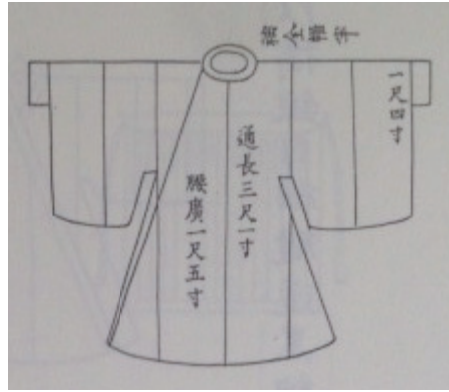
---

94) 한국고전번역원(2009), 전계서,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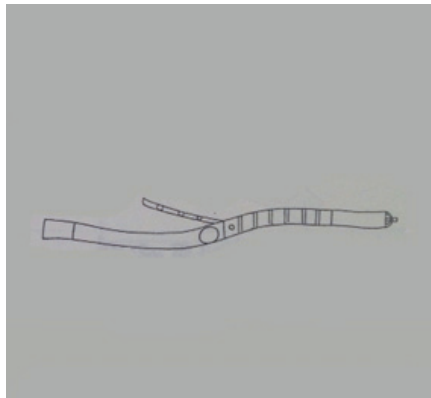
95) 상계서, p.39.



<그림 23> 약사의 복두-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1)



<그림 24> 약사의 녹초삼-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그림 25> 약사의 오정대-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6)



그림 26 약사의 흑피화-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7)

## (2) 악공 복식

종묘의례 종묘제례악 악공 연주 복식의 구성은 개적(介幘)·홍주의(紅紬衣)·백초대(白綃帶)·백포말(白布襪)·오피리(烏皮履)이다. 도장은 악공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복식을 착용한다.

종묘의례 당시 악공의 연주복식은 비란삼이 아닌 홍주의로 바뀌었고, 이후 현재까지 연주자들은 홍주의를 착용하고 있다. 비란삼과 비교해 볼 때 홍주의는 가슴과 등, 그리고 좌우 어깨에 부착했던 흉배가 없어진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비란삼은 붉은색의 명주로 만들고, 홍주의도 붉은색의 명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옷의 형태에 있어서도 ‘삼’에서 ‘의’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일무원의 복식과 색깔이 다르지만 형태면에서 같은 복식으로 바뀌었고, 속옷의 일종인 백주중단이 없어졌다<sup>96)</sup>.

개적(그림 27)은 송나라 제도에서는 가죽으로 만들고, 장식에 흑색 칠을 하였다. 당시의 제도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변두리(邊兒)는 철사를 사용한다. 안은 가는 베를 바르고, 흑색 건을 칠한 다음 자황(雌黃)으로 가늘게 그림을 그리고, 청주(靑紬)로 만든 갓끈을 단다.<sup>97)</sup> 제도는 「악학궤범」의 것과 같다. 도면을 보면 설명에서처럼 양 옆에 끈을 달아 아래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악학궤범」 도면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

홍주의(그림 28)는 문무 공인들이 입었던 남주의(藍紬衣)와 제도가 같으며, 「종묘의례」부터 악공 복식으로 기록되어있다. 도면으로 보이는 홍주의 형태는 깃은 단령이며, 소매가 「악학궤범」 일무 악공의 남주의보다는 넓은 형태를 보이고, 무가 따로 달려 있다. 홍주의를 착용하고 그 위에 백초대(그림 29)를 띤다.

백초대는 「악학궤범」 백주말대와 같이 흰색의 명주로 께매 만들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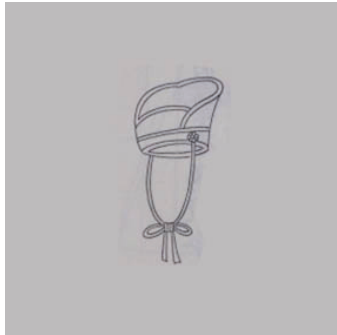
96)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게서, pp.248-249.

97) 한국고전번역원(2009), 전게서,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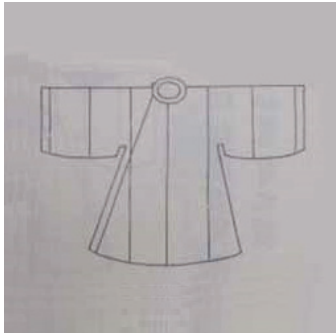
가 같으나, 도면으로 본 형태는 대의 양끝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종묘의궤」 종묘제례악 악공의 규정에서 희색의 베로 만든 <그림 30>과 같은 백포말 규정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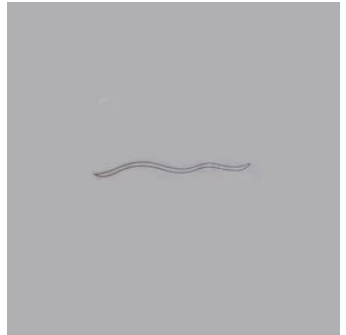
신발은 「악학궤범」의 악공과 마찬가지로 검은 가죽신인 오피리(그림 31)를 착용한다. 형태는 「악학궤범」의 오피리와 같으며 앞 코에는 운문(雲文)이 그려져 있고, 신의 양 옆에 끈을 달아 발등에서 묶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도면은 「악학궤범」의 것보다 가장자리 선이 선명하게 보이며, 앞코의 운문 모양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27> 악공의 개적-종  
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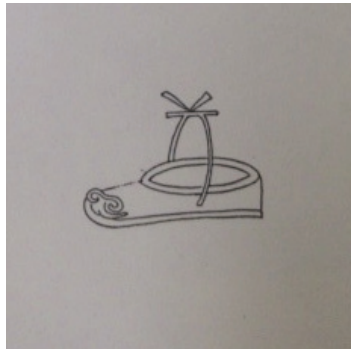
<그림 28> 악공의 홍주의·  
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4)



<그림 29> 악공의 백초대-  
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5)



<그림 30> 악공의 백포말-  
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6)



<그림 31> 악공의 오피리-  
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1권,p.117)

### (3) 일무 악공 복식

#### ① 보태평일무(문무) 악공 복식

「종묘의궤」의 종묘제례악 보태평일무 악공 복식은 진현관(進賢冠)·남주의(藍紬衣)·적상(赤裳)·적말대(赤抹帶)·백포말(白布襪)·오피리(烏皮履)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학궤범」의 보태평일무 악공 복식 구성과 같다.

진현관(그림 32)은 문무(文舞)공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현재 착용되고 있다. 진현관을 만드는 방식은 개적과 같으나 체제(體制)가 다르다<sup>98)</sup>. 진현관은 모서리가 모두 각이 져 있는 모양으로 양옆에 끈을 달아 아래로 묶을 수 있게 만들어 졌다. 도면으로 보면 「악학궤범」 도면과 채색이 다를 뿐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종묘의궤」의 진현관 착용은 「악학궤범」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주의(그림 33)는 홍주의(紅紬衣)의 제도와 같다. 문무와 무무의 공인이 입는 것으로 남주(濫紬)로 꿰매서 만든 외의(外衣)이다. 도면의 남주의는 악공이 착용하는 홍주의와 도면이 같으며, 깃은 단령이고, 무가 따로 달려 있다.

적상(그림 34)은 문무와 무무의 공인이 입는다. 적상에서 상(裳)은 하의로 홍주(紅酒)로 꿰매어 만들고, 조주(皂紬)로 가선을 만든다고 설명되어 있다. 제도는 「악학궤범」의 적상과 같다. 도면을 보면 「악학궤범」의 적상과 비슷한 형태로 선이 표현되어 있으며, 채색은 되어 있지 않고, 양 옆에는 끈이 달려 있다.

적말대(그림 35)는 악공의 백초대(白綯帶) 제도와 같다. 문무와 무무의 공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말대는 다듬이질한 홍주로 꿰매서 만든다. 일무 악공이 착용한 적말대는 적색 띠로 당나라 때에는 혁대(革帶)를 사용했고, 송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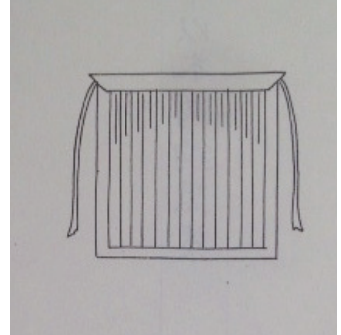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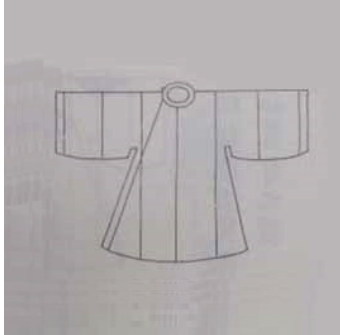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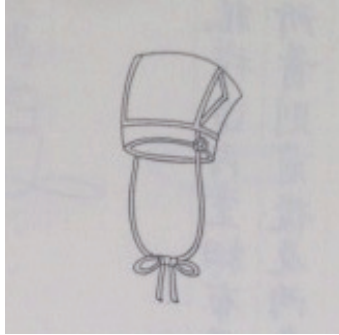
98) 한국고전번역원(2009), 전계서, p.174.

라 때에는 말대를 사용하여<sup>99)</sup> 조선시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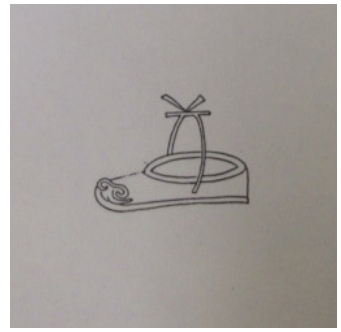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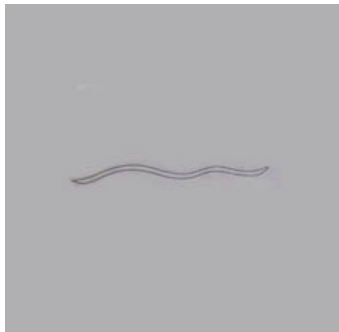
백포로 꿰매서 만든 백포말(그림 36)을 신고, 흑색 피혁으로 만든 가죽신인 오피리(그림 37)를 신는다.

---

99) 한국고전번역원(2009), 전계서, p.98.



<그림 32> 보태평일무 악공의 진현관-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그림 33> 보태평일무 악공의 흥주의-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4)      <그림 34> 보태평일무 악공의 적상-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그림 35> 보태평일무 악공의 적말대-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5)      <그림 36> 보태평일무 악공의 백포말-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그림 37> 보태평일무 악공의 오피리-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 ② 정대업일무(문무) 악공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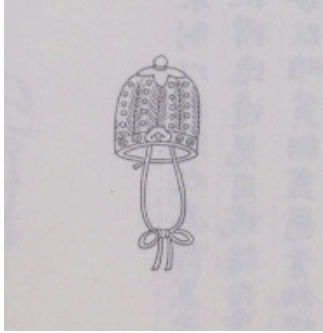
「종묘의궤」의 정대업 일무 악공 복식의 구성은 피변(皮弁)·남주의(藍紬衣)·적상(赤裳)·적말대(赤抹帶)·백포말(白布襪)·오피리(烏皮履)로 「악학궤범」의 정대업 일무 악공 복식과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또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보태평 일무 악공의 두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식과 같다.

피변(皮弁)(그림 38)은 송의 제도에서는 옷칠한 베로 꺾테기를 만들었는데, 「종묘의궤」 당시의 제도에서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다. 안은 가는 베를 바르고 흑색 칠을 하며, 겉에는 모피(毛皮) 형상을 그려 얼룩무늬가 있는 노루 가죽과 같게 한다. 좌우에 구리로 만든 운월아(雲月兒)를 붙이고, 청주로 만든 갓끈을 단다<sup>100</sup>). 도면으로 피변의 겉에 무늬가 그려져 있어 무늬를 표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개적과 진현관과 같이 양 옆에 끈이 달려 묶여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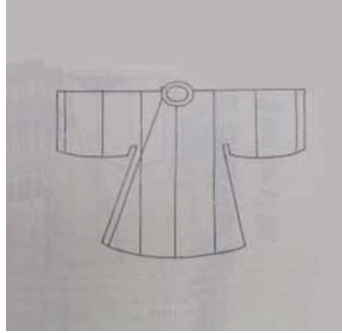
정대업 일무 악공이 착용하는 남주의(그림 39), 적상(그림 40), 적말대(그림 1), 백포말(그림 42), 오피리(그림 43)의 복식은 보태평일무 악공의 복식과 같으며, 설명 또한 이하 동일 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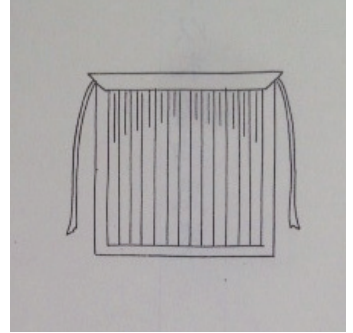
100) 한국고전번역원(2009),전계서.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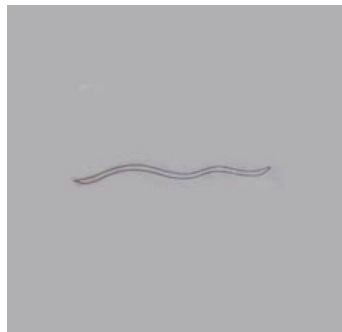
<그림 38> 정대업 일무 악공의 피변-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그림 39> 정대업일무 악공의 홍주의-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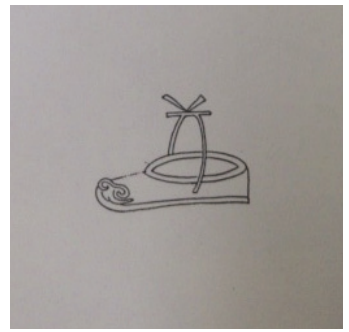
<그림 40> 정대업일무 악공의 적상-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그림 41> 정대업일무 악공의 적말대-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5)



<그림 42> 정대업일무 악공의 백포말-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그림 43> 정대업일무 악공의 오피리-종묘의궤  
(출처 : 종묘의궤 p.113)

중묘의궤에서 중묘제례악 악사 복식은 복두를 쓰고, 녹초삼을 착용하며, 오정대를 띠고, 흑피화를 신는 구성을 가진다. 악공 복식은 개적을 쓰고, 남주의를 착용하며, 백초대를 띠고, 백포말과 오피리를 신는다. 일무 악공의 복식은 보태평 일무 악공은 진현관을 쓰고, 정대업 일무 악공 복식은 피변을 쓴다. 일무 악공의 나머지 복식은 남주의, 적상, 적말대, 백포말, 오피리로 보태평과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같다.

이상으로 「중묘의궤」에서 보이는 악인 복식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종묘의궤」에서 보이는 약인의 복식

구 성	약사	약공	일무 약공	
			보태평 일무	정대엽일무
두 식				
	복두	개적	진현관	피변
외 의				
	녹초삼	홍주의	남주의	
하 의	-	-		
	-	-	적상	
대 대				
	오정대	백초대	적말대	
내 의	-			
	-	백포말	백포말	
신 발				
	흑피화	오피리	오피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헌 외에도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형태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복식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 「춘관통고(春官通告)」와 그림으로 복식 착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이 있다.

「춘관통고」는 정조 12년(1788)에 간행되어 1706년에 간행된 「종묘의궤」의 시기와 비슷하여 「종묘의궤」의 악인 복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춘관통고」에는 종묘제례악의 악공과 일무 악공의 복식이 나타나 있어 종묘의궤의 악공 복식과 일무 악공 복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종묘의궤」의 악공 복식은 개적·홍주의·백초대·백포말·오피리를 착용하였고, 「춘관통고」에서 나타난 악공 복식은 개적·홍주의·백주대·백포말·오피리로 「춘관통고」에서는 백초대를 백주대로 바꾸어 착용한 규정이 보인다. 일무 악공의 복식은 「춘관통고」와 「종묘의궤」에서 보태평 일무 악공 복식은 진현관·남주의·적상·적말대·백포말·오피리, 정대업 일무 악공은 피변·남주의·적상·적말대·백포말·오피리로 규정이 같다.

종묘제사를 비롯하여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내용 및 절차를 기록한 8쪽의 병풍인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의 그림으로 보아도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병풍은 고종 2년의 철종(哲宗)부묘까지 기록되어 있어 고종 연간(1864-1896)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에 당시 제향 헌가에서 연주하는 악공이 붉은 색의 홍주의를 입고 개적을 착용하며 어두운색 대를 두른 모습을 <그림 92>에서 볼 수 있다. 「종묘의궤」에서 악공은 홍주의에 백초대를 띠었으나 그림에서 악공은 어두운색의 대를 두르고 있어 「종묘의궤」에서 기록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그림 93>에서 일무 악공은 남색 빛의 의(衣)에 붉은 색의 대를 두른 모습으로 보아 「종묘의궤」의 일무 악공 복식 규정처럼 남주의, 적말대를 착용하였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종 연간으로 다음에 나올 「조선악개요」의 시기와는 비슷하지만, 종묘의궤를 따르는 일무 악공 복식과 대(帶)가 변화된 악공 복식을 착용하고 있어,

「종묘의례」와 「조선악개요」사이의 복식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춘관통고과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은 종묘의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춘관통고의 악공 복식과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의 악공 복식과 일부 악공 복식이 종묘의례와 같거나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헌가 악공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국립고궁박물관))



<그림 45> 일부 악공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국립고궁박물관))

### 3) 「조선악개요(朝鮮樂概要)」에서 보이는 악인 복식

19세기 이후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의 경우 「조선악개요」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조선악개요(朝鮮樂概要)」는 1918년(대정 7년)에 이왕직악대의 아악사(雅樂師)였던 오당(梧堂) 함화진(咸和鎭)이 ‘조선악(朝鮮樂)’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왕직(李王職)의 상급기관인 일본 국내성(宮內省)에 전달할 목적으로 편찬한 책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명맥을 이어오던 종묘제례악에 대해 실려 있다.

「조선악개요」에서는 19세기 이후의 개정된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으로 이태왕 임진(1882) 개정과 대정6년(1917)의 개정에 악인 복식이 제시되어 있다. 종묘제례악의 악인의 복식 구성은 조선 종묘제례주악도설부분에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 목차인 관복도면에는 도면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악개요」에서 종묘제례악 악사 복식의 구성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태왕은 대한 제국 순종(純宗)이 재위(在位)할 때 고종을 이르던 말로 이태왕 임진이라 함은 고종 29년 임진년인 1892년을 말한다. 대정 6년은 일본의 연호인 대정(大正)을 사용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였다. 대정의 기간은 1912년부터 1926년이며, 1912년을 대정1년으로 하여 대정 6년은 1917년을 말한다.

#### (1) 악사 복식

「조선악개요」의 관복도면 부분에는 악사복식과 악공 복식이 도면에 실려 있으나, 종묘제례악의 악사복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대한제국 성립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악사(집박)연주 복식에 관한 기록은 없다. 101) 「조선악개요」의 제례주악도설(祭禮奏樂圖說)부분의 종묘제례악에 관하여 나타나 있는 부분에 악공의 복식은 제시되어 있으나 악사 복식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101)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계서, p.246.

않았다. 다만 「조선악개요」의 관복도면(冠服圖面) 목차에 제시되어 있는 악사 복식(樂師服飾)으로는 冒羅幘頭(모라복두), 紅紬衣(홍주의), 烏鞞帶(오정대), 木靴(목화)<sup>102)</sup>가 있다. 당시 궁중의 악사 관복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당시 종묘제례악 악사 복식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 「조선악개요」의 악인 복식 중 악사의 복식은 제외하였다.

## (2) 악공 복식

악공의 복식은 「조선악개요」의 조선제례주악도식(朝鮮祭禮奏樂圖式)에 조선의 시기별로 아악과 속악으로 나누어 나타나 있으며, 19세기 이후의 종묘제례악의 복식은 이태왕 임진(1892) 개정 속악 부분과 대정 6년(1917) 현행 종묘 부분에 나타나 있다.

종묘제례악 악공 연주복식은 1892년에 다시 정리되는데, 기존의 복식 구성 가운데 띠가 백초대에서 남사대로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은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종묘친제규제도설’악공 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백초대가 아닌 남색 혹은 검은색으로 추정되는 띠를 띠고 있어 대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03)</sup>.

1982년 이태왕임진개정 종묘의 악공 복식은 이태왕 임진 개정 속악 헌가(李太王 壬辰 改定 俗樂 軒架) 악현에 ‘樂工 三十人, 並介幘冠, 紅紬衣, 藍紗絲帶, 白布襪, 烏皮履<sup>104)</sup>’라고 쓰여 있어 악공의 연주 복식은 개적을 쓰고, 홍주의를 입으며, 남사대를 띠고, 오피리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1892년에 악제의 개정 때 규정된 종묘제례악 연주복식은 대한제국으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종묘제례악 악공 연주복식은 1917년 당시에도 그대로 착용되어졌다<sup>105)</sup>.

102) 함화진(1917), 朝鮮樂概要. p.143.

103)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계서, pp.249-250.

104) 함화진(1917), 전계서, p.145.

1917년 개정 대정 6년 현행 종묘(大正 六年 現行 宗廟) 헌가 악헌에 ‘樂手十四人, 並介幘冠, 紅紬衣, 藍絲帶’<sup>106)</sup> 라고 나타나 있다. 이것으로 14인의 아악수는 개적을 쓰고, 홍주의를 입으며, 남사대를 두른 복장임을 알 수 있다. 1982년의 백포말과 오피리의 규정은 1917년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여기에서 아악수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선악개요」의 악공 복식 규정은 1982년과 1917년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악개요」에서 제시되어 있는 종묘제례악의 악공의 복식 중 개적과 백포말, 오피리의 도면은 그려져 있지 않아 이들의 형태를 알 수 없었고, 홍주의(그림 46)와 남사대(그림 47)은 도면에 나타나 있어 형태를 볼 수 있다.

홍주의는 것이 단령(團領)이며, 소매가 크고 넓으며, 무가 따로 재단하여 달려있지 않고 소매에 붙어 재단되어 있는 형태이다. 또 소매 수구 부분에는 좁은 소매처럼 보이는 천이 덧대어진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악공의 홍주의 착용은 「종묘의례」부터 보이고 있으며 「조선악개요」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도면으로 보면 이전의 것은 무가 있으나 「조선악개요」의 것에는 무가 없고, 소매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사대는 남색의 실을 원통형으로 짜서 만든 대이다. 조선시대 사대는 양반 평상복의 가슴위에 매던 것으로 계급에 따라 색<sup>107)</sup>을 다르게 하여 띠었다. 사대에 도면으로 보아 실로 꼬아 만든 것을 알 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양쪽 끝은 술이 달려있다. 악공의 대(帶)로 악학계범은 백주말대, 종묘의례는 백초대를 띠었으나 조선악개요에서는 남사대를 띠어 종묘제례악 악인의 복식에서 사대(絲帶)가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의 대(帶)를 크게 나누어 봤을 때 각대류와 조아류(條兒類)가 있으며, 조아류는 고려대 사대(絲帶)라고 불리 우든 것으로 사대(絲帶)는 재료를 뜻하는 사(絲) 뒤에

105)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계서, p.250.

106) 함화진(1917), 전계서. p.147.

107) 김영숙(1998), 전계서, p.144.

‘대(帶)’를 붙인 허리띠의 명칭이다.<sup>108)</sup> 사대 외에 실로 만든 대의 명칭은 조(組)와 다회(多繪)등이 있으며, 각 명칭 앞에 세(細)·광(廣)을 붙여서 그 끈목의 굵기를 표현하고, 동(東, 同, 童), 원(圓)을 붙여서 단면을 표시하였다<sup>109)</sup>. 조아(條兒)는 주(主)로 향사(鄕史), 서사(書史), 별감(別監) 등 낮은 관사(官史)들과 유생(儒生)들이 사용(使用)하였다. 그러나 국말(國末)에는 널리 사용되어 정일품(正一品), 정이품(正二品)의 사복(私服)에 까지 사용하게 되었고<sup>110)</sup>, 고종왕조실록에 있는 당상관의 사대(絲帶)는 홍자색, 당하관은 청녹색, 유생은 혁대를 사용하도록 한 기록이 있고, 『증보문헌비고』에는 문무 당상관의 사대는 홍자색, 당하관은 청녹색, 관직이 없는 사람은 흑색, 유생은 혁대를 쓴다<sup>111)</sup>고 하여 계급에 따라 사대의 색이 다르게 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국말의 사대 가 널리 착용되면서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에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08) 김시재(2008), 조선시대 조대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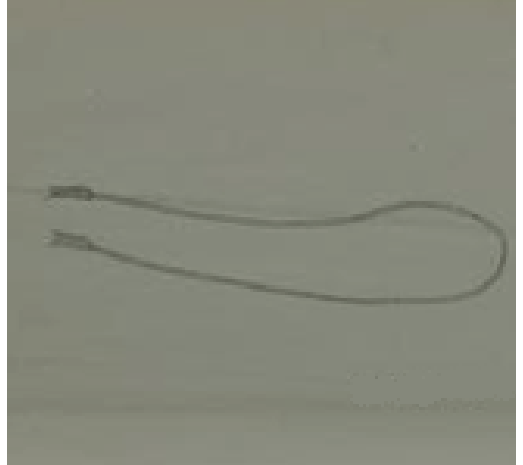
109) 상계서, p.18.

110) 박수자(1967), 대의 변천에 관한 소고. 『가정』 1권15호, pp.100-101.

111) 김시재(2008), 조선시대 조대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6-27



<그림 46> 악공의 홍주의-조선악개요  
(출처 : 조선악개요(국악박물관))



<그림 47> 악공의 남사대-조선악개요  
(출처 : 조선악개요 (국악박물관))

### (3) 일무 악공 복식

조선악개요의 일무 악공의 복식은 보태평 일무와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이 동일하다. 1982년의 개정과 1917년의 개정에서 같은 규정을 보이며 복두(幘頭) · 홍주의(紅紬衣) · 남사대(藍絲帶)를 착용한다.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과 같으며,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과 마찬가지로 1892년 개정과 1917년 개정에서 같은 규정을 보인다. 따라서 정대업 일무 악공은 복두(幘頭)(그림 48)를 쓰고, 홍주의(紅紬衣)(그림 49)를 착용하며, 남사대(藍絲帶)(그림 50)를 띠었는데 이는 악기 연주를 하는 악공의 복식과 같다.

이 시기의 보태평 일부 복식은 진현관 대신 복두를 착용하고, 남주의 대신 홍주의를 착용했으며, 상(裳)이 없어졌고, 적말대 대신 남사대를 착용하는 등 보태평 일부 복식의 특징이 사라지고 연주자 복식과 동일한 형태가 되었다. 112)



<그림 48> 일부 악공의 복두-조선악개요 (출처 : 조선악개요 (국악박물관))



<그림 49> 일부 악공의 홍주의-조선악개요 (출처 : 조선악개요 (국악박물관))



<그림 50> 일부 악공의 남사대-조선악개요 (출처 : 조선악개요 (국악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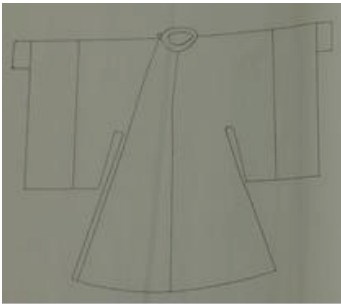

보태평 일부 악공은 복두(幘頭)(그림 48)를 착용하며 도면으로 보아 복두는 검게 채색되어 있으며, 얇고 긴 각(脚)이 있으며 각의 끝은 둥글게 표현되었다. 홍주의(紅紬衣)(그림 49)를 착용하는데 악공의 홍주의와 도면이 같다. 깃은 단령(團領)이고, 무가 없으며, 소매 끝에 짧고 좁은 소매가 그려져 있다. <그림 50>의 남사대(濫絲帶) 또한 악공의 남사대와 같으며, 도면에 실로 꼬아 만든 사대로 알아 볼 수 있도록 대가 표현되었으며, 양 끝에 술이 있다.

112)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게서, p.254.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의 악사의 복식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19세기 말의 종묘제례악의 악사 복식을 「조선악개요」에서 밝힐 수 없었으며, 악공의 복식의 경우 1892년 개정과 1917년 개정에서 규정이 약간은 다른 구성을 보인다. 악공의 복식은 개적을 쓰고 홍주의를 입고 남사대를 띠며, 1892년에는 백포말과 오피리의 규정이 보이나, 1917년에는 백포말과 오피리의 규정은 없다.

보태평과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동일하며 복두를 쓰고, 홍주의를 착용하고, 남사대를 두른다.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의 악인의 복식의 구성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악개요」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구성	악사	악공		일무 악공 (1892년과 1917년동일)	
		1892년개정	1917년개정	보태평 일무	정대업 일무
두식	-	-	-		
	-	개적	개적	복두	
의상	-				
	-	홍주의			
	-				
	-	남사대			
	-	-	-	-	-
	-	백포말	-	-	-
신발	-	-	-	-	-
	-	오피리	-	-	-

문헌의 악인 복식을 15세기는 「악학궤범」, 17세기는 「종묘의궤」, 19세기는 「조선악개요」를 정리하여 알아보았다. 이상의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사의 복식을 문헌별로 알아보면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 악사 복식은 나타나 있지 않아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문헌만 비교 가능하였다. 악사 복식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같은 구성을 가진다. 악사 복식에서 두식은 복두를 착용하는데, 도면을 살펴보면 「악학궤범」의 것은 채색이 되어 있으나 「종묘의궤」의 도면은 채색되어 있지 않고, 「악학궤범」의 복두는 양 각(脚)의 끝 부분이 「종묘의궤」의 것에 비하여 더 둥근 형태를 보이며, 「종묘의궤」의 각(脚)의 끝은 뾰족해 보인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 악사의 외의(外衣)로는 녹초삼을 착용하고, 각 문헌에 나타난 녹초삼 제도법의 설명이 같으며, 도면을 보면 두 개의 문헌이 같은 치수표기가 되어 있다. 형태는 단령 깃이고, 「종묘의궤」의 녹초삼은 소매 부분에서 절개선이 더 보이며, 「악학궤범」의 녹초삼은 무가 싫에 붙어 재단되어 있으나 「종묘의궤」에서는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는 형태를 보여 전체적인 치수는 같으나 제도법(制度法)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는 검은 색의 오정대를 띠는데 한쪽 끝에 나무로 만든 교구(鉸具)가 있는 형태가 같고, 두 문헌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나 채색의 차이가 있다.

흑피화는 앞코가 들린 모양과 화의 앞쪽의 무늬까지도 두 문헌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묘의궤가 이전의 문헌인 「악학궤범」을 참고하여 만들어 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상으로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의 악사 복식의 구성과 형태를 비교한 표는 아래의 <표 6>이다.













<표 6> 문헌 별 종묘제례악 악사 복식

구성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두식			-
	복두	복두	-
의상			-
	녹초삼	녹초삼	-
			-
오정대	오정대	-	
신발			-
	흑피화	흑피화	-

문헌별 악공의 복식은 세 문헌 모두 종묘제례악의 악공의 복식이 나타나 있으며, 15세기의 「악학궤범」와 17세기의 「종묘의궤」, 19세기의 「조선악개요」가 모두 비교가 가능하다. 위의 세 문헌 모두 두식은 개적을 착용한다. 「악학궤범」의 개적과 「종묘의궤」의 개적은 채색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명주 끈으로 아래를 묶은 형태가 비슷하다. 「악학궤범」은 비단삼, 백주중단을 착용하는데, 「종묘의궤」에서는 남주의를 착용하여 의상의 변화가 보인다. 또 19세기의 「조선악개요」에서는 홍주의를 착용하여 악공의 복식은 17세기부터 19세기로 변해왔다. 19세기의 「조선악개요」의 복식은 1892년 개정과 1917년 개정에서 같은 의상을 착용함을 볼 수 있다. 악공의 대는 「악학궤범」에서는 백주로 만든 말대인 백주말대를 착용하였는데, 「종묘의궤」는 백초대를 띠며, 「조선악개요」에는 남사대를 착용하여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변해왔으며 「악학궤범」와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1892년 개정에는 모두 백포말의 규정을 보이고 있으나 「조선악개요」 1917년 개정에는 백포말의 규정이 없다. 오피리도 백포말과 같은 규정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 7>는 문헌별 종묘제례악의 악공의 복식 구성의 표이다.

<표 7> 문헌 별 종묘제례악 악공 복식

구성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1892년 개정)	(1917년 개정)
두식			-	
	개적	개적		
외의				
	비란삼	홍주의	홍주의	
중의		-	-	-
	백주중단	-	-	-
대대			남사대	
	백주말대	백초대		
내의			-	-
	백포말	백포말	백포말	-
신발			-	-
	오피리	오피리	오피리	-
















일부 악공 복식 구성은 세 문헌에서 모두 볼 수 있어 변화를 비교할 수 있었다.

문헌 별 보태평 일부 악공의 복식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두식은 진현관을 착용한다. 「종묘의궤」의 진현관은 「악학궤범」의 것과 비교하면 채색을 하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아래 명주 끈으로 묶은 모양을 그려 놓은 형태도 비슷하다. 「조선악개요」의 두식은 복두로 변화된 두식을 착용하게 되었다. 의상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는 모두 남주의, 적상을 착용 하는데, 「악학궤범」의 남주의는 「종묘의궤」의 남주의와 같이 목이 붙는 단령의 형태지만 「악학궤범」의 것은 소매가 직선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종묘의궤」의 것은 소매가 넓은 형태의 도면을 가지고 있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적상은 같은 형태로 채색의 유무의 차이가 있다. 「조선악개요」의 외의는 홍주의로 변화된 의상을 착용하며 적상의 규정은 사라졌다.

「조선악개요」의 홍주의는 「종묘의궤」의 남주의와 다른 형태로 제도되었다. 남남주의에서는 두리소매 부분의 절개가 있으며 무가 따로 달린 형태로 제도되었으나 홍주의는 두리소매의 절가와 양 옆의 무의 절개선이 보이지 않으며 남주의의 배래는 좁은데 반해 홍주의의 배래는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형태가 보인다.


보태평 일부 악공의 대는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는 적말대를 띠었다가 조선악개요에는 실로 꼬아 만든 남사대를 띠었다. 「악학궤범」의 적말대의 양끝은 각지고 같은 넓이로 제도되어 보이나 「종묘의궤」의 적말대는 끝이 가늘게 제도되었다. 「조선악개요」의 대에 실을 꼬아 만든 것처럼 그려놓아 사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양 끝에 사대의 술이 보인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는 백포말과 오피리의 규정이 있으나 「조선악개요」에는 백초말과 오피리의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래는 문헌 별 보태평 일부 악공의 복식 구성 표이다.

<표 8> 문헌 별 종묘제례악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

구성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1982년 개정과 1917년 개정 동일)
두식			
	진현관	진현관	복두
의의			
	남주의	남주의	홍주의
하의			-
	적상	적상	-
대대			
	적말대	적말대	남사대
내의			-
	백포말	백포말	-
신발			-
	오피리	오피리	-

종묘제례악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의 문헌 별 구성 변화는 다음과 같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문헌의 두식에서는 피변을 착용하며 도면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조선악개요」는 두식의 규정이 복두이며 이는 「조선악개요」 1892년 개정과 1917년 개정이 같다. 의상의 규정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는 보태평 일무 악공의 의상과 마찬가지로 남주의를 착용하고, 두 문헌에서 일무 악공 복식은 두식을 제외하고 보태평 일무 악공과 정대업일무 악공이 같기 때문에 형태의 비교도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 비교와 같다. 「조선악개요」의 의상은 이전에는 남주의에서 홍주의로 바뀌었으며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보이던 적상의 규정은 사라졌고,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는 적말대를 착용하였으나 「조선악개요」에서는 남사대를 착용하였다. 대의 규정은 「악학궤범」, 「종묘의궤」에서는 오정대를 띠었고, 「조선악개요」에서는 남사대를 띠며 보태평 일무 악공의 것과 같다. 이전에는 보이던 백포말과 오피리의 규정이 「조선악개요」에는 사라졌다. 아래의 표는 문헌의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 구성을 정리한 표이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는 보태평과 정대업일무의 복식이 두식을 제외하고는 같은 복식을 착용하였고, 「조선악개요」에서는 보태평과 정대업 일무 복식은 같다.

<표 9> 문헌 별 중요제례악 정대업 일부 악공의 복식

구성	악학궤범	중묘의궤	조선악개요 (1982년 개정과 1917년 개정 동일)
두식			
	피변	피변	복두
외의			
	남주의	남주의	홍주의
하의			-
	적상	적상	-
대대			
	적말대	적말대	남사대
내의			-
	백포말	백포말	-
신발			-
	오피리	오피리	-

### Ⅲ.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현행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악보존회에서 주관하며, 종묘제례악의 교육과 무형문화재 전수는 국립국악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과 무용의 공연 및 연구·진흥·교육·강습 등의 민족 문화 고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sup>113)</sup>하며 종묘제례악을 전승하고 있다.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자료를 얻기 위하여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거행되는 종묘제례악을 직접 관람하였으며, 종묘제례악보존회의 자문을 구하여 현행의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을 정리하였는데 현행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의 규정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립기관에서 출판된 단행본과 국립국악원의 자료, 문화재청과 종묘제례를 주관하는 전주이씨대동종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현재 종묘제례악보존회와 전통문화공연진흥재단에서 5월과 6월 사이 매주 토요일마다 종묘에서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종묘제례악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현행 종묘제례악의 경우 영역이 확대되어 종묘 외에도 국악원의 공연장과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설 공연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묘에서 종묘제례와 함께 거행되는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만을 연구 범위로 하여 정리하였다.

#### 1. 악사 복식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집박을 담당하는 악인을 악사라고 하며, 현행 종묘제례악에서는 집박(執拍)이라 한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하

---

113) 서한범(1997), 전게서, p.265.

는 악인이므로 문헌에서처럼 악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현행 악사는 복두(幘頭)를 쓰고, 흉배가 달린 청삼(靑衫)을 착용하며, 그 위에 각대(角帶)를 띠고, 목화(木靴)를 신는다.

복두(그림 51)는 검은색이며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금색선이 있고, 양 옆에 둥글고 넓적한 각(脚)이 있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복두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고 검은 칠은 하였고, 모라복두(冒羅幘頭)라 하여 얇은 견직물의 소재로 싸여져 만들었으나. 현행의 복두는 현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벨벳소재 원단으로 싸여진 형태로 만들어져 제작과 보관과 착용이 편리하도록 현대화되었다. 종묘제례악 악사의 복두 착용은 「악학궤범」 이후로 계속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도 복두 착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삼(그림 52)은 녹초삼과 같이 단령의 형태를 갖는 포로 겹감은 녹색의 사, 안감은 붉은색 사로 만들어졌다. 또한 앞, 뒤로 쌍학흉배가 부착된 것이 특징이다. 흉배는 조선시대에 품계에 따라 문양을 달리 하여<sup>114)</sup> 왕족과 문무백관의 상복(常服)에 부착하였던 수놓은 천으로 현행 악사의 청삼에는 조선시대 문관당상관의 쌍학흉배가 부착하여 착용되어 지고 있다.

청삼의 둥근 것의 단령 형태이며, 소매는 폭이 넓은 두리소매로 구성되어 있고, 수구만 남기고 막혀 있는 형태를 보인다. 무가 있으며 무가 뒤로 보내져서 길과 함께 상침(上針)하여 고정되어 있다. 여밈의 형태는 단령 것의 연결된 겹것의 끝부분에 매듭단추를 잡아 오른쪽에 고정시키며 안고름과 겹고름이 있다.

악사 각대(그림 53)의 형태는 청색 천으로 둘러 싸여져 있으며 착용시 앞으로 오는 부분은 사각형의 각(角)으로 보이는 띠꾸미개가 붙여져 있고, 양 옆에는 원형의 각(角)으로 보이는 것이 부착되어 있다. 교구(鉸具)는 오정대의 교구 모양이며 금속으로 되어 있다. 각대는 청삼 착용 후 가슴부분에 띠

114) 김영숙(1998), 전계서, pp.426.

다.

현행 악사의 신발은 목화(木靴)(그림 54)이다. 검정색 목길이의 화(靴)로 앞코가 살짝 위로 들린 모양이며 흰색 선으로 장식되어 있고, 착용이 용이하도록 안쪽에 지퍼가 달려 있다. 목화 착용에 대해 살펴보면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에 무동(舞童)복식에서 무동이 신는 목이 긴 신이라는 설명이 있다. 조선시대의 목화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 길이가 정강이의 반이라고 하면 발목 바로 위까지의 높이이므로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sup>115)</sup> 여기서 목화라는 명칭이 ‘발목길이’ 까지라는 데서 유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목화를 만드는데 사용한 재료로 가죽, 나무, 단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116)</sup> 현행 악사의 목화는 현행의 악공과 일부 악공의 목화와 같은 것을 착용한다.

---

115) 광경희(2003), 조선시대 남자용 형, 포제 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116) 상계서. p.32



<그림 51> 악사 복두-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52> 악사 청삼-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53> 악사 오정대-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54> 악사 목화-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 2. 악공 복식

현행 종묘제례악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인 악사(樂師)라고 불리우나,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인은 악공(樂工)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현행에서 악사라고 불리는 악인의 복식을 문헌에서처럼 악공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공 복식은 개적(介帻)을 쓰고, 홍주의(紅紬衣)를 입고, 남사대(藍絲帶)를 띠며, 목화(木靴)를 신는다. 현행 악공 복식에서는 버선이나 기타 다른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악공 두식은 개적(그림 55)으로 검은 색의 벨벳소재 원단에 테두리에는 금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개적은 조립하지 않았을 때는 일자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악학궤범이나 종묘의궤의 개적은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철사를 넣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며 검은 칠을 하며, 자황(雌黃)으로 가늘게 그림을 그리며 청색 명주 끈을 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개적은 종이를 배접하여 검은 칠을 하지 않고 검은 색의 천으로 짠 것이며,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지 않은 겉과 안이 같은 원단으로 싸여있고, 이전에 것이 끈을 달아 묶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행은 없어서 개적 뒤로 끈이 있어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황으로 그림을 그려 만들었던 금색의 선은 현재는 금색의 실로 선이 둘러져 있어, 현대화된 모습을 보인다.

홍주의(그림 56)의 겉감은 붉은색의 사(紗), 안감은 청색의 사(紗)로 만들어졌고, 단령 형태이며, 소매는 두리소매로 수구를 제외하고 아래 배래는 모두 막혀있다.

조선시대 홍주의(紅紬衣)함은 붉은 색의 명주(紅紬)로 만든 의(衣)라는 이전 문헌의 설명이 있었다. 현행의 홍주의는 명칭은 홍주의(紅紬衣)로 같으나 실제로는 사(紗)로 만들어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종묘대제가 행해지는 시기

가 5월이며, 햇볕아래에서 연주하는 악공을 위하여 얇은 소재를 이용하고, 제도의 편의를 위해 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남사대(그림 57)은 남색의 명주실로 꼬아 만든 사대로 얇은 원통형이며 양 끝에 술이 있다. 종묘제례악 악공이 착용하는 사대는 남사대로 청색이다. 종묘제례악 악공의 사대 착용은 『조선악개요』부터 보여 진다. 국말에 사대는 널리 사용되어 악인 복식에도 착용되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신발은 발목 정도 길이의 목화(그림 58)로 현행 악사의 목화와 동일한 것을 착용한다. 악공의 목화착용은 이전의 규정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55> 현행 악공의 개적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56> 악사 홍주의-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57> 현행 악공의 개적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58> 악사 목화-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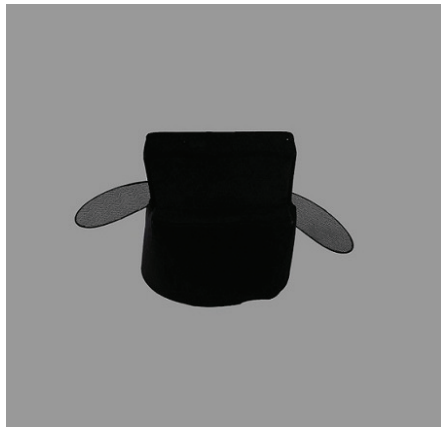
### 3. 현행 일무 악공 복식

일무를 추는 악공은 보태평 일무(문무), 정대업 일무(무무)를 추는 악공이 있다. 이전에는 보태평과 정대업 일무를 추는 일무 악공의 복식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세기 「조선악개요」 문헌부터 일무 악공의 복식은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였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현행의 보태평 일무,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므로 보태평과 정대업으로 나누지 않고 일무 악공 복식으로 정리하였다.

일무 악공의 복식은 복두(幘頭) · 홍주의(紅紬衣) · 남사대(藍絲帶) · 목화(木靴)를 착용하여, 현행 악공 복식과 두식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 복식은 같다.

일무 악공의 복두는 <그림 59>이다. 복두의 모양은 각(脚)이 있으며, 다른 장식은 없으며, 벨벳소재의 원단으로 둘러싸여있다. 악사 복두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금색 선이 둘러져 있으나, 일무 악공의 것에는 선이 없고, 각의 크기와 모양은 악사의 것과 같았다.

홍주의(그림 60)은 깃은 단령의 형태이며 겹감은 붉은 색의 사, 안감은 청색의 사로 만들어져 있고, 무가 달려있으며, 소매의 형태가 크고 넓다. 일무 악공의 홍주의는 악기 연주하는 악공의 홍주의와 같은 것을 착용하며, 남사대(그림 61), 목화(그림 62) 또한 앞에 나온 현행 악공의 것과 같다.



<그림 59> 일무 악공 복두-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60> 일무 악공 홍주의-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61> 일무 악공 남사대-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그림 62> 일무 악공 목화-현행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2013.05.25.)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착용하였던 일무 악공의 복식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1969년에 종묘에서 종묘제와 함께 종묘 제례악과 일무가 연행되었다. 모든 예는 황제의 예에 기준으로 하는 일무로 추었으며, 복식은 홍주의에 남사대를 매고 복두를 쓰고 목화를 신었다. 종묘 소장 홍주의의 걸감의 색은 꽃자주색인 간색으로 되어 있다. 1997년 이후 종묘제례악 보존회는 홍주의의 색을 바꾸어 착용하고 있다<sup>117)</sup>

아래의 <그림 80>은 현행으로 입혀지기 전의 홍주의로 간색(間色)의 홍주의로 현재는 종묘에 소장되어 있으며, 입혀지지 않는다. <그림 81>의 현행 일무 악공 홍주의와 색상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0> 종묘 소장 일무 악공 홍주의  
(출처 : 종묘제례악. p.21)



<그림 81> 현행 일무 악공 홍주의  
(출처 : 종묘제례악 p.257)

이상으로 현행 종묘제례악에서 입혀지는 악인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

117)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전개서. p.160.

악사는 복두를 쓰고, 흥배가 달린 청삼을 착용하고, 각대를 띠며, 목화를 신는다. 악공은 개적을 쓰고, 홍주의를 입고, 남사대를 띠며, 목화를 신는다. 보태평 일부 악공과 정대업일부 악공의 복식은 동일하며, 복두를 쓰고, 홍주의를 입고, 남사대를 띠며, 목화를 신는다. 표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

구성	악사	악공	일부 악공
두식			
	복두	개적	복두
의상			
	청삼	홍주의	
			
	각대	남사대	
신발			
	목화		

## IV. 악인 복식 비교

문헌과 현행의 악인 복식을 비교하는데 있어 음악을 지휘하는 악사 복식, 악기 연주와 노래를 하는 악공 복식, 춤을 담당하는 보태평 일무 악공과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고, 복식은 두식 · 외의 · 내의 · 대 · 신발로 정리하였다.

### 1. 악사 복식

#### 1) 복두(幞頭)

「악학궤범」, 「종묘의궤」, 현행 종묘제례악의 악사 복식에 두식은 모두 복두를 착용한다.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 악사 복식은 나타나 있지 않아 「조선악개요」 악사 복식은 비교는 하지 못하였다.

문헌과 현행의 복두는 양옆에 각(脚)이 달린 형태가 같다. 그러나 문헌에 나타난 도면들로 복두의 형태를 비교하면 「악학궤범」 복두 각의 끝부분은 둥글게 표현되어 있으나, 「종묘의궤」의 것은 각의 끝이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고, 두 문헌의 복두는 채색의 차이를 보인다. 문헌의 복두를 현행 악사 복두와 사진으로 비교하면 문헌에서 그려져 있는 각의 형태에 비해 더 둥글고 넓적해 보이며, 크기가 더 커 보인다. 현행 복두는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문헌 복두에는 볼 수 없었던 복두 가장자리를 따라 금색의 선이 둘러져 있어 문헌과 차이가 보인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 설명된 복두의 제도법은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안은 가는 베를 바르고 흑색 칠을 하여<sup>118)</sup> 만들며, 조선 악사들이

118) 한국고전번역원(2009), 전게서, p.173.

쓰는 복두는 모라복두(冒羅幞頭)라 하여 사(紗)로 싸여져 만들어졌다. 현행의 것은 벨벳류의 원단으로 싸여져 만들어졌으며, 이는 현대에서 편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었고, 보관과 착용에 있어서도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2) 외의(外衣)

악사들이 외의(外衣)로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는 녹초삼(綠綃衫)을 착용하였으나 현행은 청삼(靑衫)을 착용한다.

「악학궤범」의 녹초삼을 보면 단령(團領)의 것이며, 소매가 상당히 크고 넓으며 무는 따로 재단하여 붙이지 않은<sup>119)</sup> 형태를 보인다. 「종묘의궤」의 녹초삼은 「악학궤범」과 마찬가지로 단령이며, 소매가 상당히 크고 넓어 보이거나 배래부분이 악학궤범의 것보다 약간 둥글게 표현되어 있고, 무가 따로 재단되어 붙여진 형태를 보이는 점이 다르다.

문헌 녹초삼과 현행 청삼의 공통점은 것이 단령이며, 소매가 크고 넓은 두리소매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면으로 보는 녹초삼은 단령이 목에 꼭 맞도록 그려져 있으나 현행 청삼은 단령은 아래로 파져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다르다.

문헌의 녹초삼에는 소매 수구 부분에는 좁은 소매처럼 보이는 천이 덧붙여 있는 형태를 보이지만, 현행의 청삼은 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막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두 문헌의 도면으로 비교하면 「악학궤범」의 녹초삼은 배래부분이 직선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종묘의궤」의 것은 악학궤범에 비해 둥글게 표현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 문헌의 녹초삼에는 치수를 적어 놓아 제작 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 적혀 있는 치수는 녹초삼의 소매는 전폭(全幅)의

---

119) 장영수(1983), 전세서, p.108.

반이고 1자 4치, 전체의 길이는 3자 1치, 허리의 폭은 1자 5치이며, 두 문헌이 같다.

현행 청삼에는 조선시대 문관의 상복(常服)에 부착하던 쌍학흉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문헌 녹초삼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헌의 녹초삼은 녹색의 명주로 만들었다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 명주 원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행의 것은 사(紗)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현재 종묘제례가 1년에 한번 5월에 행해질 때 더운 날씨에 대비하여 악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직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얇은 직물인 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대대(大帶)

악학궤범, 종묘의궤의 악사들은 오정대(烏鞞帶)를 띠고, 현행 악사는 각대를 띤다.

먼저 문헌의 오정대를 비교하면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오정대는 도면의 채색 차이와 갈고리 부분을 그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악학궤범」의 것에는 채색이 되어 있으며, 채색으로 미루어 보아 채색된 부분에는 과판을 붙여 장식한 부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종묘의궤」의 오정대는 채색이 되어 있지 않으나 「악학궤범」의 것에서 장식 부분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의 그림의 모양과 개수가 같게 그려졌다. 문헌에 나타난 제도법은 같게 설명되어 있으며, 오정대는 혁대의 일종으로 나무로 갈고리를 만들고, 흑색 칠을 하여 만들어졌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오정대를 비교하면 도면의 채색을 제외하고는 형태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진다.

현행 각대는 파란색의 각대로 각(角)으로 보이는 장식이 붙여져 있다. 문헌의 오정대처럼 교구가 갈고리처럼 형성되어 있어 대의 반대쪽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갈고리로 넣어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문헌 오정대는 설명

으로 갈고리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였으나 현행의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차이를 보인다. 문헌의 오정대는 검은 혁대인데 비해 현행 각대는 청색의 원단으로 싸여져서 만들어졌다. 현행의 오정대는 문헌의 오정대에 장식으로 붙여 있는 과판의 모양 및 개수도 다르게 만들어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문헌의 오정대와 현행의 각대는 재료와 색상에서 제도의 차이가 보이며, 이는 현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현대화하여 제작 및 착용, 보관에 용이 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4) 신발

악학궤범, 종묘의궤의 악사는 흑피화(黑皮靴), 현행 악사는 목화(木靴)를 신는다.

흑피화는 흑색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靴)으로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도면을 비교하면 두 문헌은 흑피화의 전체적인 형태는 신의 앞코가 살짝 들려 있으며, 장식선이라고 생각되는 발등 위로 그려진 선과 정강이 부분에 그려진 선이 있다. 두문헌의 흑피화 도면 형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종묘의궤」가 「오례의」와 「악학궤범」을 참고하였기에 비슷한 도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헌의 흑피화와 현행 목화를 비교하면 현행 목화는 문헌 흑피화와 같이 신의 앞코가 살짝 들려 있고, 발등 위로 흰색의 장식선이 보이는데 문헌에서 보이는 장식선과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다. 목화는 발목 정도의 길이이나 문헌의 도면으로 본 흑피화는 길이가 목화의 길이보다 길다고 생각되어 진다. 목화에는 착용이 용이하도록 신의 안쪽에 지퍼를 달아 문헌의 흑피화와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신발 역시 현대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과 착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 2. 악공 복식

### 1) 개적(介帻)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의 악공과 현행 악공은 모두 개적을 착용한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개적은 도면이 그려져 있어 형태를 알 수 있으나, 「조선악개요」의 개적은 도면이 나타나 있지 않아 「조선악개요」 당시 개적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도면의 형태를 비교하면 악학궤범은 채색이 되어 있고 종묘의궤는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개적의 모양과 양옆에 청주로 만든 갓끈을 달아 아래에서 묶어놓은 모양이 그려진 것은 같다고 보인다. 현행 개적과 문헌의 개적 도면을 비교하면 현행은 문헌과는 다르게 머리 가운데로 금색을 3줄 넣었으며, 문헌에서 보였던 양옆에 달았던 끈이 사라지고, 개적 뒤로 여밈이 있어 사이즈를 조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이를 보인다.

### 2) 외의(外衣)

「악학궤범」의 악공은 비란삼(緋鸞衫)을 착용한다. 비란삼은 「악학궤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묘제례악 악공의 복식으로는 착용되지 않았다. 「종묘의궤」와 「조선악개요」에서 악공은 홍주의를 착용하며 현행 악공도 홍주의를 착용한다.

「악학궤범」에 있는 비란삼(緋鸞衫)은 소매가 크고 넓으며 깃은 단령(團領)이고 연(緣)을 하고 있으며 허리에는 주름이 없다<sup>120)</sup>. 홍주로 꿰매서 만

들며, 가슴의 앞뒤와 좌우의 어깨에 흉배(胸背)의 형상처럼 난봉(難捧)을 그린다. 비란삼의 소매 수구에는 천이 덧붙여 있어 좁은 소매 모양이 덧붙여 있는 모습이다<sup>121)</sup>.도면으로 보아 비란삼은 무가 따로 재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묘의례」부터 「조선악개요」, 현행의 악공들의 착용하는 의의는 홍주의로 도면에 보이는 「종묘의례」의 홍주의는 깃은 단령이며, 소매가 「악학궤범」의 비란삼과 「조선악개요」의 홍주의와 비교하였을 때 좁게 표현되어 있고, 무가 따로 재하여 달려있는 형태를 보인다.

「조선악개요」 홍주의도 단령의 깃이며, 소매가 크고 넓으며, 무가 소매에 붙어 재단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홍주의 수구에 비란삼의 수구와 같이 현행 악공의 홍주의도 문헌의 의의와 같이 단령 깃을 갖고 있으나 문헌 도면들에 비해 아래로 깊게 파여져 있고, 소매는 크고 넓은 두리소매를 가지고 있으며, 수구부분을 제외하고 막혀있다.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문헌들에 나타난 도면의 홍주의 형태와 현행 홍주의를 비교하면 악학궤범의 비란삼과 종묘의례, 조선악개요, 현행의 홍주의는 모두 단령의 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현행 단령 깃이 아래로 깊게 파져 있어 문헌 도면으로 표현된 단령 깃은 아래로 파져 있지 않아 형태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악학궤범의 비란삼과 종묘의례의 홍주의, 현행의 홍주의는 모두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으나, 조선악개요의 홍주의는 무가 소매에 붙어 재단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소매의 형태로도 악학궤범은 소매가 크고 넓으며 수구부분에 천을 덧대어 좁은 소매처럼 보이나 종묘의례의 것은 악학궤범과 조선악개요, 현행과 비교하여 소매가 좁게 표현되어 있으며 둥근 배래의 형태를 보이고, 조선악개요의 소매는 소매의 절개선이 더 적게 보이

120) 장영수(1983), 전계서, p.108.

121) 정영란(2005), 수작의례에 나타난 의례와 복식 연구 : 일무복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4

며 소매 수구부분 모양이 악학궤범의 비란삼과 같아 문헌 외의들의 형태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현행의 소매는 크고 넓으며, 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배래부분은 모두 박혀 있어 문헌들과의 차이를 보인다. 문헌의 비란삼과, 홍주의는 모두 홍주로 꿰매서 만들었으나 현행의 홍주의는 악사 외의와 같이 사를 이용하여 만들어 저서 그 이유에 있어서도 같다고 생각되어 진다.

### 3) 중의(中衣)

「악학궤범」에는 악공 복식에는 백주중단(白紬中單)을 착용하였다. 「종묘의궤」부터는 비란삼 대신 홍주의를 착용하며 중단을 착용하지 않게 된다<sup>122)</sup>. 이후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악공 복식에는 홍주의를 착용하여, 백주중단의 규정이 찾아 볼 수 없어 백주중단이 종묘제례악 악공의 복식으로 악학궤범의 시기에만 입혀져 다른 시기와 비교 할 수 없다.

백주중단은 비란삼의 안에 받쳐 입는다. 관직자들의 제복(祭服)이나 조복(朝服)의 의(衣)속에 받쳐 입는 중단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소매배래 모양의 차이가 있다<sup>123)</sup>. 백주중단의 깃은 직령이며, 넓은 소매를 가지고 있고, 무가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백주중단은 다듬이질한 백주로 꿰매어 만들며 흑주(黑紬)로 가선을 만드는데<sup>124)</sup> 도면의 채색된 부분이 흑주로 만든 가선임을 짐작 할 수 있다.

### 4) 대대(大帶)

「악학궤범」의 종묘제례악 악공은 백주말대(白紬抹帶)를 띠며, 「종묘의

122) 정영란(2005), 전계서, p.86.

123) 상계서, p.65.

124) 한국고전번역원(2009), 상계서, p.176.

케」에서는 백초대(白綃帶)를 띠고, 「조선악개요」에서는 남사대(藍絲帶)를 띠며, 이는 현행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악학궤범의 악공은 다듬이질 한 흰색 명주로 꿰매 만든 백주말대를 띠고, 종묘의례 악공도 흰색명주로 꿰매 만든 백초대를 띤다. 따라서 두 문헌의 대는 흰색 명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보이며, 도면에는 두 문헌 모두 천으로 꿰매 만든 것처럼 약간의 굵기가 표현되어 있으나 대의 양끝의 모양에서 차이가 있다. 도면에서 악학궤범 백주말대의 끝은 각지게 표현되어 있고, 종묘의례 백초대의 끝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는 차이가 보인다.

앞의 두 문헌은 천을 꿰매 만든 대를 띠고,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악사는 실로 꼬아 만든 남사대를 착용하여 악공의 대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악개요의 남사대 도면에는 실을 꼬아 만든 대임을 느낄 수 있게 도면이 표현되어 있으며, 대의 양 끝에 술이 달려 있다. 현행 남사대는 조선악개요의 남사대와 형태가 같으며, 양 끝에 달려 있는 술의 형태를 조선악개요와 비교하면 도면의 것보다 술의 길이가 더 길어 보인다. 조선악개요 시기인 19세기부터 남사대를 착용하게 된 것은 조선 국말에 사대의 착용이 널리 이용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진다.

## 5) 백포말(白布襪)

악공의 백포말 착용은 「악학궤범」과 「종묘의례」, 「조선악개요」 1892년 개정에 나타나 있고, 「조선악개요」 1917년 개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현행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은 「조선악개요」의 복식을 따르고 있으나, 백포말에 대한 기타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내의인 백포말은 백포(白布)로 꿰매서 만들고, 안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백포말 도면은 나타나 있으나 「조선악개요」의 도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도면이 나타난 두 문헌의 백포말 형태는 앞코가 뾰족하고, 아무런 무늬가 없는 평범한 버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현행에서는 백포말의 규정은 없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6) 신발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1892년 개정에서 악공은 오피리(烏皮履)를 신고, 「조선악개요」 1917년 개정에서는 신발의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현행 악공은 목화를 착용한다. 「조선악개요」의 오피리 도면은 나타나 있지 않아 이전의 것과 형태를 비교할 수 없었고, 악공 목화는 악사가 착용하는 목화와 동일하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오피리의 형태는 목이 짧은 가죽신으로 검은 물 들인 쇠가죽이나 말가죽으로 만들고, 신의 양옆에 끝을 달아 발등위에서 묶여진 모양이며, 신코에 구름모양이 장식되어 있어 같은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도면에서 종묘의궤의 구름모양 장식이 악학궤범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종묘의궤의 오피리가 악학궤범의 보다 선이 명확하게 그려진 도면을 보인다. 현행 악공은 목화라는 목이 긴 신발을 착용하는데 이는 현행 악사의 목화와 같다. 악공의 신발이 악사와 같은 목화를 착용하는 것은 현재에 와서는 악사와 악공의 지위가 비슷해지면서 점점 같은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일무 악공 복식

#### 1) 두식

일무 악공은 보태평일무 악공과 정대업일무 악공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복식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는 보태평일무 악공·정대업 일무 악공은 다른 두식을 착용하였으며, 두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식은 모두 같았다. 「조선악개요」부터 보태평일무 악공·정대업일무 악공의 복식은 두식을 포함하여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며 현행 일무 악공 복식 또한 보태평과 정대업의 구분이 없어졌다.

보태평일무 악공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는 진현관을 착용하였고, 「조선악개요」와 현행에서는 복두 착용을 보이고 있다. 정대업일무 악공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피변을 착용하였고, 「조선악개요」와 현행에서는 보태평일무 악공과 마찬가지로 복두를 착용하였다.

#### (1) 진현관(進賢冠)

진현관(進賢冠)은 보태평일무(문무) 악공들이 착용하는 쓰개로, 「악학궤범」·「종묘의궤」의 보태평일무 악공이 착용하였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진현관 도면은 모두 양옆에는 끈이 달려 아래로 묶여 있고, 각진 형태가 같으나 「악학궤범」의 진현관은 채색이 되어 있고, 「종묘의궤」의 진현관은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악학궤범」은 「오례의」를 참고 하여 만들어 졌고, 「종묘의궤」는 「오례의」과 「악학궤범」을 참고하고 있어, 도면이 비슷하게 그려졌다고 생각된다. 두 문헌에서 진현관의 제도법은 종이를 배접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같으며, 이는 개적과 같고 체제만 다르다.

## (2) 피변(皮弁)

피변은 정대업일무 악공이 착용하는 쓰개로 「악학궤범」·「종묘의궤」의 정대업일무 악공이 착용하였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피변은 검은 모피 형상을 그려 노루가죽의 얼룩무늬와 같게 만들었다. 두 문헌의 도면은 채색이 되어 있지 않으며, 좌우에 구리로 만든 운월아(雲月兒)를 붙이고, 양 옆에 청주로 만든 갓끈을 달아 아래로 묶어 그려져 있는 형태로 같다. 다만 도면에 표현된 장식모양이 종묘의궤의 도면이 악학궤범의 비해 더 선명히 보이는 차이가 있다. 두 문헌에서 피변의 제도법은 같다.

## (3) 복두(幘頭)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보태평·정대업일무 악공이 착용하는 쓰개이다. 「조선악개요」부터 보태평 일무 악공과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의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며 모두 복두를 착용한다.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복두는 모두 검정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조선악개요」의 도면에서 복두는 각이 얇고 길게 표현되어 있으나 현행 복두는 「조선악개요」도면과 비교하면 복두의 각이 「조선악개요」보다 끝이 둥글고, 넓으며, 짧아 보이는 차이가 있다.

현행의 일무 악공이 착용하는 복두는 현행 악사들이 쓰는 복두와 구분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현행 일무 악공의 복두는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으나 악사 복두는 테두리를 따라 금색의 선으로 둘러져 장식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 2) 외의(外衣)

「악학궤범」·「종묘의궤」·「조선악개요」·현행에서 보태평일무 악공과 정대업일무 악공은 구분되지 않고 같은 외의를 착용하며,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일무 악공들은 남주의를 착용하였고, 「조선악개요」와 현행에서는 홍주의를 착용하였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보태평일무·정대업일무 악공은 두식 차이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복식은 모두 동일하였다

남주의의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악학궤범과 종묘의궤 모두 단령의 깃을 가지고 있고, 무가 따로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이는 점이 같다. 악학궤범의 소매는 직배래로 소매 끝으로 갈수록 소매가 직선으로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종묘의궤의 깃은 배래의 형태가 둥글며, 악학궤범의 것보다는 넓게 나타나있어 차이를 보인다.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일무 악공은 홍주의(紅紬衣)를 착용한다.

조선악개요의 도면으로 볼 수 있는 홍주의는 단령의 깃이고, 무가 길에 붙어 재단되어 있으며, 소매가 크고 넓은 두리소매를 보여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남주의와 비교하면 무가 재단되어 있지 않고, 소매가 남주의에 비해 더 크고 넓은 형태를 보이며, 수구에 천이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차이가 있다. 현행 홍주의는 문헌의 남주의, 홍주의와 마찬가지로 단령의 깃이나 아래로 깊게 파여있다. 소매가 크고 넓으며, 따로 천이 달려있는 형태는 볼 수 없고, 무가 길에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는 형태를 보여 문헌의 형태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 3) 적상(赤裳)

적상(赤裳)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보태평일무 악공·정대업

일부 악공이 착용하는 하의이다.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일부 악공은 착용하지 않는다.

상은 홍주를 꿰매서 만들며, 조주로 선(選)을 대어 만든다. 악학궤범 도면과 종묘의궤 도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으나, 채색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악학궤범의 도면에서 채색된 부분이 조주(皂紬, 검은 명주)로 선을 댄 부분이라고 짐작 할 수 있으며, 도면에 선이 아래로 많이 그려진 부분은 주름이라고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려졌다. 두 도면은 적상의 양옆에 끈을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 4) 대대(大帶)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일부 악공들은 적말대(赤抹帶)를 띠고, 조선악개요와 현행은 남사대(藍絲帶)를 띠는다.

적말대는 다듬이질 한 적색 명주를 꿰매어 만들어 사용하는데, 악학궤범의 도면은 백주말대와 같으며, 종묘의궤의 도면은 백초대와 같다.

악학궤범의 적말대 도면은 양끝이 각진 형태를 보이고 종묘의궤의 것은 뾰족한 형태를 가진 차이를 보인다.

조선악개요의 남사대는 실을 꼬아 만든 사대로 도면에 대에 꼬임이 표현되어 있으며 양 끝에 술이 달려있다. 현행 남사대를 조선악개요 남사대와 비교하면 현행의 것이 술이 크고 길다고 생각되어 진다. 현행 일부 악공의 남사대는 현행 악공의 남사대와 동일하다.

#### 5) 백포말(白布襪)

일부 악공 복식에서 백포말(白布襪)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일부 악공이 착용하며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규정에 백포말은 없다. 백포말은 백포로 꿰

매어 만든 버전이며, 백포말은 악학계범과 종묘의궤의 악기 연주하는 악공의 백포말과 같다.

## 6) 신발

악학계범과 종묘의궤의 일부 악공은 오피리(烏皮履)를 착용한다. 조선악개요의 일부 악공 규정에는 신발의 규정은 없었으며, 현행의 일부 악공은 목화를 착용한다.

일부 악공의 오피리는 악학계범, 종묘의궤의 악기 연주를 하는 악공의 것과 같아 이하 비교는 악공의 신발과 같다. 오피리는 검은 가죽으로 만들며 끈을 단다.

종묘제례악의 악인 연주 복식에 관한 기록이 되어있는 문헌 중 복식의 형태도 제시되어 있는 15세기의 「악학계범」, 17세기-19세기의 「종묘의궤」, 19세기말과 그 이후의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을 악사, 악공, 일부 악공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문헌별 종묘제례악의 악사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학계범의 악사 연주 복식 구성은 복두를 쓰고, 녹초삼을 입고, 오정대를 띠고, 신은 흑피화를 신었다. 종묘의궤의 악사 연주 복식은 악학계범의 악사 연주 복식과 같다. 복두를 쓰고, 녹초삼을 입고 오정대를 띠고 흑피화를 착용하였다.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 연주 복식은 따로 나타나 있지 않아 문헌으로는 조선악개요의 종묘제례악 악사의 복식을 확인 할 수 없다. 현행의 악사복식으로는 복두를 쓰고, 흥배가 달린 청삼에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는다.

등가와 헌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 복식을 형태가 제시된 문헌 별로 비교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노래를 하는 도창악사는 악공으로 분류 되어

도창악사의 복식은 연주자인 악공의 복식과 같다.

악학궤범의 악공 연주 복식은 개적을 쓰고, 비란삼, 백주중단을 입고, 백포말을 신고, 백주말대를 띠고, 오피리를 착용한다. 종묘의궤의 악공 연주 복식은 홍주의를 입고, 백포말을 신고, 백초대를 띠며, 오피리를 신었다. 17-19세기의 종묘의궤의 종묘제례악 악공 연주 복식을 15세기의 악학궤범과 비교했을 때 악공 연주자의 겉옷이 비란삼(緋鸞衫)에서 홍주의(紅紬衣)로 바뀌었고 속옷인 백주중단의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백주말대에서 백초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쓰개 종류인 개적(介적)과 신발인 오피리는 악학궤범에 이어 종묘의궤에서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악개요의 악공 복식은 19세기말 이후의 종묘제례악의 악공 연주 복식이 나타나 있는데 1892년 개정과 대정6년이라 쓰여 있는 한일합병 이후의 1917년의 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92년 개정에서 악공 연주 복식은 개적을 쓰고 홍주의를 입고 백포말을 신고 남사대를 띠고 오피리를 신었다. 이는 그전의 종묘의궤와 비교했을 때 개적, 홍주의, 백포말과 오피리를 신는 것, 그리고 백주중단의 규정이 없는 점이 같았다. 대(帶)는 백초대에서 남사대로 바뀐 점이 다르다. 조선악개요 1917년 개정을 보면 개적을 쓰고, 홍주의를 입고, 남사대를 띠었다. 조선악개요 1892년 개정과 달라진 점은 백포말과 오피리의 규정이 없는 점이 다르다.

현행 악공 연주 복식은 개적을 쓰고 홍주의를 착용하며 남사대를 띠고, 목화를 신는다. 현행의 악공 복식을 15세기의 악학궤범과 비교하였을 때 개적의 착용만 같았고, 나머지 의상과 대, 신발의 착용은 모두 달라졌다. 외의인 비란삼은 홍주의로 바뀌고, 백주중단은 사라졌으며, 백주말대는 남사대로 바뀌고, 백포말의 규정도 사라지고 오피리는 목화로 바뀌었다. 또 17-19세기의 종묘의궤와 개적, 홍주의의 착용은 같고, 백포말 규정과 대의 종류, 신발의 종류가 다르다. 종묘의궤의 백초대는 현행은 남사대를 띠고 백포말의 규정은 사라지고, 종묘의궤의 오피리와 달리 목화를 신는다.

현행을 조선악개요와 비교 하였을 때 개적, 흥주의, 남사대를 띠는 점은 같다. 조선악개요의 1892년 개정에서는 개적, 흥주의, 남사대, 백포말, 오피리의 규정이 있었으나, 조선악개요 1917년 개정에서는 개적, 흥주의, 남사대로 백포말과 오피리의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현행은 조선악개요 1917년 개정과 같이 백포말의 규정이 없고, 1917년 개정에서는 신발의 규정이 없었다. 목화(흑피화에서 목화로 명칭을 바뀜)를 신는 점이 다르다. 조선악개요 1892년의 악공의 신발을 오피리로 신었다. 현행은 목화로 바뀌었다.

일무 악공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학궤범의 보태평일무 악공의 복식은 진현관, 남주의, 적상, 적말대, 백포말, 오피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묘의궤의 보태평일무 악공의 복식도 동일하였다. 악공의 복식 구성의 변화에 비해 일무 복식은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악학궤범의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은 피변, 남주의 적상, 적말대, 백포말, 오피리의 규정으로 보태평 일무 악공의 복식에 비하여 두식의 종류만 다를뿐 나머지 복식의 구성은 같다. 종묘의궤의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도 악학궤범의 것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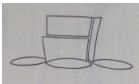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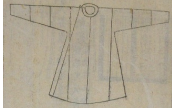










이후 조선악개요 문헌부터는 보태평과 정대업의 일무 복식이 같으며 조선악개요의 일무 복식의 구성은 복두, 흥주의, 목화로 이전의 것들과 비교하면 복식의 모든 구성이 바뀌었다. 현행의 복식은 복두, 흥주의, 남사대, 목화로 조선악개요의 구성과 거의 같아 조선악개요에서 보이던 규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문헌까지는 보태평 일무와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이 두식 종류만 다르고, 다른 복식의 형태는 동일하여 보태평과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에 차이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악개요 문헌부터는 현행은 보태평과 정대업 일무 악공의 복식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며 연주자인 악공 복식과도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대한제국 이후부터는 일무의 복식이 악공 복식과의 구분, 보태평과 정대업의 구분이 없어졌다

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문헌과 현행 종묘제례악의 복식의 도면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11> 악인 복식 구성 비교 표

악사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현행	악공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현행	일무악공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현행		
	두식			-			두식				-		두식			
	복두	복두	-	복두		개적	개적	개적	개적		진현관	피변	진현관	피변	복두	복두
외의			-		외의					외의						
	녹초삼	녹초삼	-	청삼	중의	비난삼	홍주의	홍주의	홍주의		남주의	남주의	홍주의	홍주의		
대대			-		중의		-	-	-	하의			-	-		
	오정대	오정대	-	각대	중의	백주중단	-	-	-	하의	적상	적상	-	-		
신발			-		대대			-	-	대대			-	-		
	흑피화	흑피화	-	목화	대대	백포말	백포말	백포말	-	대대	적말대	적말대	남사대	남사대		
					신발	배주말대	백초대	남사대	남사대	신발			-			
					신발			-		신발	오피리	오피리	-	오피리	오피리	목화
						오피리	오피리	오피리	오피리							

## V. 결론

종묘제례악은 악·가·무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과 가사, 일무가 혼합된 종합예술로 종묘(宗廟)라는 궁궐에서 조상신을 제사를 드리는 종묘제례을 행할 때 연주되는 제향음악이다. 종묘제례악은 세종31년에 회례악무로 창제된 보태평 정대업이 약간의 개정을 거치며 세조10년 이후로 제례악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이후로 지금까지 500여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며 오늘날 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귀중한 음악이다. 이처럼 종묘제례악은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창조하여 우리 고유한 음악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15세기에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이 나타난 악학궤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사는 얇은 각이 있는 복두를 쓰고, 깃은 단령이며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무가 섰에 붙어서 재단되어 있는 형태의 녹초삼을 입으며, 그 위에 과판으로 장식된 혁대인 오정대를 띠며, 신의 앞코가 위로 살짝 들린 형태인 흑피화를 착용한다.

악공은 아래로 묶는 끈이 달린 개적을 쓰고, 외의로는 홍색명주로 만들며, 깃은 단령이고, 두리소매에 수구에 천이 덧댄 형태를 보이며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고, 난봉으로 앞뒤와 어깨의 좌우를 장식한 비란삼을 착용한다. 중의로는 깃이 직령으로 된 백주중단을 입는다. 그 위에는 백주말대를 띠며, 백포말을 착용하고, 단요인 오피리를 신는다.

일무 악공의 복식으로는 보태평일무 악공은 진현관을 쓰고, 단령 깃에 무가 있고 소매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남주의를 입으며, 적상을 두른다. 적말대를 착용하고, 백포말의 규정이 있으며, 오피리를 신는다. 정대업일무 악공 복식은 두식으로 피변을 쓰며, 두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식은 정대업일무 악공과 같다.

17세기부터 19세기의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을 알 수 있는 종묘의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사는 복두를 쓰고, 단령 깃에 두리소매이며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는 형태의 녹초삼을 입고, 오정대를 띠며, 흑피화를 착용하여 복식의 구성은 악학궤범의 악사와 같다.

악공의 복식은 개적을 쓰며, 단령의 깃을 보이고 소매 끝에 천이 덧붙여지지 않은 형태이며 무가 따로 달려 있는 형태의 홍주의를 입으며, 그 위에 백색 명주를 꿰매서 만든 백초대를 띠고, 백포말을 신으며, 오피리를 착용한다. 종묘의례의 악공 복식은 악학궤범의 악공 복식과는 다른 구성을 보인다.

일무 악공 복식으로 보태평일무 악공은 진현관을 쓰고, 남주의를 입고, 적상을 두르며, 백포말을 신고, 오피리를 신는다. 정대업일무 악공의 복식은 두식을 제외하고는 보태평일무 악공의 복식과 같으며, 두식으로는 피변을 착용한다. 이처럼 종묘의례의 일무 악공 복식은 악학궤범의 일무 악공의 복식 구성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19세기 이후 일제 강점기에도 종묘제례악은 명맥을 이어왔는데 당시의 조선악개요에서 악인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묘제례악의 악사 복식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악공의 복식으로 1982년 개정은 개적을 쓰며, 단령의 깃과 두리소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가 삶에 붙어 재단되어 있는 형태의 홍주의를 입고, 실로 꼬아 만든 남사대를 띠며, 백포말을 신고, 오피리를 착용한다. 1917년 개정으로는 개적, 홍주의, 남사대의 규정만 보이고 있다. 악공의 복식 구성은 이와 같으나 개적과 백포말, 오피리는 도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형태까지 비교 할 수 없었다.

조선악개요부터는 일무 악공인 보태평일무 악공과 정대업일무 악공의 복식이 두식을 포함하여 모두 같은 구성을 보인다. 일무 악공은 복두를 쓰고, 홍주의를 입으며, 남사대를 띤다. 기타 백포말이나 신발의 규정은 따로 나

타나 있지 않았다. 홍주의와 남사대는 일무악공의 것과 같으며 이는 악공과 일무 악공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묘제례악에서 입혀지는 악인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 악사는 가장자리에 금색으로 장식 선을 둘러져 있으며 넓고 둥근 각의 형태를 가진 복두를 쓰며, 쌍학흉배가 부착되어진 청삼을 착용하고, 청색의 각대를 띠며, 발목길이의 목화를 신는다.

악공은 개적을 착용하고, 단령 것이며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무가 따로 재단하여 달려 있는 형태의 사로 만들어진 홍주의를 입으며, 실로 꼬아 만들어진 남사대를 띠고, 악사의 것과 같은 목화를 신는다. 일무 악공의 복식은 보태평일무 악공과 정대업일무 악공의 복식의 구분이 없으며, 아무런 장식이 없는 복두를 쓰고, 악공과 같은 홍주의와 남사대, 목화를 착용한다. 현행 일무 악공의 복식은 두식을 제외하고 악공의 복식과 같다.

문헌과 현행의 복식을 악인별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악사의 두식은 「악학궤범」, 「종묘의궤」와 현행에서 복두를 착용하는데 범과 종묘의궤의 도면으로 얇고 긴 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의 양 끝이 악학궤범의 것보다 종묘의궤에서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다. 현행 복두의 각은 문헌의 것보다 짧고 넓적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외의로는 「악학궤범」, 「종묘의궤」에는 녹초삼을 착용하였으나 현행은 흉배가 달린 청삼을 착용한다. 악학궤범, 종묘의궤, 현행의 외의는 모두 단령 것이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소매 수구부분에 천으로 덧대여진 형태를 보인다. 현행 소매는 문헌과 같이 두리소매이나 소매 수구부분에 천으로 덧댄 형태가 아니라 수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래부분은 모두 막혀있는 형태를 보인다, 악학궤범에서는 무가 쇠에 붙어 재단되어 있으나, 종묘의궤와 현행은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다. 또 현행 청삼은 조선시대 문관의 상복에 부착되었던 쌍학흉배가 부착되어 있는 것

이 문헌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대로는 「악학궤범」, 「종묘의궤」에서는 오정대를 착용하고, 현행은 각대를 착용한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는 비슷한 나무로 만든 갈고리에 과판으로 장식되어 있는 비슷한 도면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각대는 금속으로 만든 갈고리와 각(角)으로 보이는 장식이 달려 있다.

신발으로 「악학궤범」, 「종묘의궤」는 흑피화를 착용하며 두 문헌의 도면은 신의 앞코가 들려 있고 신의 길이가 착용 시 앞쪽의 길이가 뒤쪽의 길이보다 길으며 정강이 부분에 같은 무늬가 그려져 있다. 현행의 목화는 문헌의 도면과 비교하면 더 짧아보이는 발목 길이 정도의 신으로, 신의 앞코가 들려 있고 흰색의 장식선이 보인다.

악공의 복식으로는 「악학궤범」, 「종묘의궤」, 조선악개요와 현행이 모두 개적을 착용한다.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개적은 청주로 만든 갓끈이 아래로 달려 묶여 있으며 채색유무를 제외하고 형태가 같다. 조선악개요의 개적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형태의 비교 할 수 없었고, 현행의 개적은 아래로 묶는 갓끈이 사라졌다. 문헌에서는 자황으로 가장가지를 따라 둘렀다고 하였는데 현행의 것은 가장자리를 따라 금색의 선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과 머리위로도 장식선이 더 보인다.

외의로는 악학궤범은 비란삼을 착용하고, 종묘의궤와 조선악개요, 현행은 홍주의를 착용한다. 세 문헌과 현행의 형태를 비교하면 모두 단령 깃을 보이나, 소매의 형태와 무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악학궤범의 비란삼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수구 부분에 천이 덧대여진 형태를 보이나 종묘의궤의 홍주의는 소매가 악학궤범의 것보다 좁게 그려져 있으며 수구부분에 덧붙여진 천이 없다. 조선악개요의 홍주의는 다시 악학궤범의 비란삼과 같이 소매가 크고 넓게 표현되어 있으며, 소매 수구에 천이 덧붙여진 형태를 보인다. 현행의 홍주의의 소매도 크고 넓은 두리소매이며, 소매에 덧붙여진 천

의 형태는 없고, 수구부분을 제외하고 막혀 있는 차이를 보인다. 악학계범과 종묘의궤에서는 무가 따로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이며, 조선악개요 당시에는 무가 섶에 붙어 재단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은 다시 무가 따로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악학계범의 비란삼은 이후 흥주의와 비교하였을 때 앞뒤와 어깨의 좌우에 난봉의 흥배가 붙여져 있는 것이 다르다. 또 악학계범의 비란삼은 중의로 백주중단을 착용하였으며 이후 흥주의를 착용하면서 중단이 착용이 사라진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악학계범의 백주중단은 직령 것이며 백주로 만들었으며 가장자리에 조주로 만든 선을 댄 것이 특징이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대는 악학계범에는 다듬이질한 백주로 만든 백주말대를 띠며, 종묘의궤는 백초대, 조선악개요와 현행은 남사대를 착용한다. 악학계범과 종묘의궤의 대는 모두 백주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도면으로 형태를 비교하면 대의 끝이 악학계범의 백주말대는 각이 지게 그려져 있으며, 종묘의궤의 백포대는 양끝이 뾰족하게 그려져 있다. 이후 조선악개요부터 현행은 실로 꼬아 만든 남사대를 착용하여 차이를 보인다.

또 악학계범과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1982년 개정에서는 백포말의 규정이 보이며 그 이후 조선악개요 1917년 개정과 현행에는 백포말의 규정은 없다. 백포말의 형태는 백포로 만든 버전으로 일반 버전의 형태와 같다.

신발은 악학계범과 종묘의궤, 조선악개요 1982년 개정에서는 단요인 오피리를 착용하며, 조선악개요 1917년에는 신의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현행은 발목길이의 목화를 착용한다. 신의 형태는 악학계범과 종묘의궤는 신코에 운문모양의 장신이 있으며 신의 양옆에 끈을 달아 발등위로 묶을 수 있는 형태를 보이고 종묘의궤와 악학계범의 도면은 선의 선명함을 제외하고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조선악개요에선 도면으로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아 형

태를 비교 할 수 없었으며 현행의 목화는 악사와 같은 목화를 착용하여 문헌과 현행의 신의 착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일무 악공 복식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 보태평일무 악공과 정대업일무 악공이 두식에서 구분이 있으며 이후로 조선악개요와 현행에서 일무 악공 복식은 구분되지 않고 같은 복식을 착용한다.

먼저 보태평 일무 악공의 두식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는 진현관을 착용하며, 정대업 일무 악공의 두식은 악학궤범과 종묘의궤는 피변을 착용하고, 이후 조선악개요와 현행의 보태평일무 악공과 정대업일무 악공은 모두 복두를 착용한다. 진현관은 아래로 묶는 갓끈이 달려 있으며 두 문헌의 형태가 같다. 피변은 노루가죽처럼 보이도록 무늬를 그리고, 운월아를 붙여 장식한 형태로 두 문헌의 형태가 같으며, 악학궤범보다 종묘의궤의 피변이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이후 착용되어진 두식으로 조선악개요의 복두는 얇고 긴 각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복두는 조선악개요 복두에 비해 넓고 둥글며 큰 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무 악공의 외의는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에서는 남주의를 착용하고, 조선악개요와 현행은 홍주의를 착용한다. 모두 단령 깃의 형태를 보이나 소매의 형태 무의 유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악학궤범의 남주의는 소매가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종묘의궤의 남주의는 악학궤범보다는 소매가 넓으며 배래가 둥글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악개요의 소매는 크고 넓은 두리소매를 보이고 수구에 천이 덧대어 붙여진 형태를 보인다. 현행의 소매도 크고 넓은 두리소매를 보이나 수구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막혀있는 차이를 보인다. 악학궤범에서는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있는 형태를 보인다. 이후 종묘의궤에서도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이지만 조선악개요의 홍주의는 무가 따로 달려 있지 않고 썩에 붙어 재단되어 있고, 현행의 홍주의는 다시 무가 따로 재단되어 달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하의로 악학계범과 종묘의궤에서는 적상이 일무 악공 복식으로 보이는데 이후 조선악개요와 현행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적상의 형태는 양옆에 끈이 달려 묶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악학계범의 적상 도면은 채색이 되어 있고, 종묘의궤의 것은 채색이 되어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대로 악학계범과 종묘의궤는 적말대를 착용하고, 조선악개요와 현행은 일무 악공과 같은 남사대를 착용한다. 백포말의 규정은 악학계범과, 종묘의궤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후 조선악개요와 현행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신발은 악학계범과 종묘의궤는 악공과 같은 오피리를 착용하였으나 조선악개요에서는 신발의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현행 일무 악공은 현행 악사와 현행 악공과 같은 발목 길이의 목화를 착용한다.

이상으로 문헌에 나타난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과 현행의 악인 복식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는데, 현행의 악인 복식은 모두 현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여밈에 있어서도 현대화되어 만들어져있었다. 이는 현행의 것은 제작과 착용, 보관에 있어서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문헌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도면이 보이는 것은 그 문헌이 이전의 문헌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의 악인 복식을 알 수 있는 조선악개요(朝鮮樂概要)에서는 종묘제례악의 악사 복식의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도면(圖面)에 악공 복식의 형태가 모두 나타나 있지 않아 자세한 형태를 알 수 없던 점과 문헌에서 도면은 앞면만을 알 수 있고 뒷면이나 여밈 등의 자세한 형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현행 복식은 그 형태를 자세히 확인 할 수는 있었으나 현행의 악인 복식에 대한 규정과 자료를 잘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종묘제례악의 악인 복식이라는 제향관련 복식을 시대별 고

서와 현행을 통하여 이제까지 연구된 적 없는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 변화의 정리를 시도 하였다. 문헌 중에 그림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그리고 현행 악인 복식의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재 시행되는 복식을 연구했다는 점이 완전하게 정리했다고 하기는 미흡하나, 우리 전통 악인 복식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계승에 보다 신중을 기릴 수 있을 것임에 의의를 갖는다.

## 참 고 문 헌

### [古書]

樂學軌範.

宗廟儀軌.

朝鮮樂概要.

春官通考.

增補文獻備考.

世宗實錄.

### [단행본]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서울 : 책과 함께,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종묘제례악(제1호)』. 서울 : 민속원,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종묘제례(제56호)』. 서울 : 민속원, 2008.

권오창.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 옷』. 서울: (주)현암사, 1998.

김경실. 『조선시대 궁중진연 복식』. 서울 : 경춘사, 2003.

김동욱. 『종묘와 사직』. 서울 : 대원사, 1990.

김영숙 저.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 미술문화, 1998.

문숙희. 『종묘제례악의 원형과 복원』. 서울 : 학고방, 2011.

문화재청. 『유네스코선정 무형유산걸작 종묘제례·종묘제례악』. 대전 : 문화재청, 2002.

문화재청. 『한국의 세계유산』. 서울 : 놀와, 2010.

서인화 편.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서울 : 국립국악원, 2001.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1995.

- \_\_\_\_\_. 『국악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1998.(개정판)
- 성현 외, 민족문화추진회 역주, 『국역악학궤범』,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5.
- 송방송 저. 『악학궤범 용어총람』. 서울 : 보고사. 2010.
- 신대철 외5인.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신명호.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서울 : 돌베개, 2002.
- 안환 저. 『조선음악의 연구』. 보고사, 2008.
- 이종숙. 『종묘제례악 일무의 왜곡과 실제』. 서울 : 민속원, 2012.
- 이혜구 역주(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p.115
- 정영진. 『일제강점기 국악』. 파주 : (주)한국학술정보, 2007.
- 한국고전번역원. 『종묘의궤 1』, 『종묘의궤 2』 서울 : 김영사, 200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1』. 서울 : 민속원,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 서울 : 민속원, 2005.
- 한홍섭. 『아악혁명과 문화영웅 세종』. 서울 : 소나무, 2010.

## [논문]

- 강환직. 종묘제례악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종묘제례악의 문화사적 가치, 국악교육 제27집(2009년), 한국국악교육학회, pp.71-103 . 2009.
- 고광립. 복두·공복에 관한 연구(인천: 인천교대 논문집 제15집, 1980.
- 곽경희. 조선시대 남자용 혁(革)·포제(布製) 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미영, ‘악학궤범’ 당악정재의 규칙성과 사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 학위논문, 2009.
- 김시재, 조선시대 조대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은주·김문자, 삼국시대 과대의 영식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6호, 1998.
- 김현정. 종묘제례악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내용체계 및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현호. 종묘제례악 당피리 선율에 나타나는 미의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성연. 종묘제례악의 제도적, 사상적 기반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수자, 대의 변천에 관한 소고. 가정 1권15호, 1967
- 박영미. 조선후기 예악사상과 등중정재의 변화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용운, 고려시기의 복두와 복두소, 한국사학보 제 19호, 1229-6353, 2005.
- 박치완. 경모궁제례악과 종묘제례악의 비교분석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인화. 19세기 장악원의 존재양상, 서울대학교 동양음악 제24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2.
- 손봉숙. 종묘제례악의 원형회복 : 미완의 역사!, 동향/연구 보고서, 대한민국국회. 2005.
- 송방송. 장악원 소속 악공, 악생의 봉족제도: 악장등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14호, pp.493-52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 송지원. 조선시대 장악원의 악인과 음악교육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43집, pp.167-191, 한국국악학회. 2008.

- 신동숙. 제례악의 지도방안 연구 : 종묘·문묘제례악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안명옥. 조선시대 예악사상과 춤 전문양성기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안성일. 종묘제례악보태평의장구점과 북점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양경숙. 종묘제례악의 악보 및 음악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송이. 종묘제례악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순자. 조선왕조시대 악인복에 관한 연구-악사, 전악, 악생, 악공을 중심으로-한국복식학회지 5권, 한국복식학회. 1981.
- 이욱. 조선시대 왕실제사와 제물의 상징: 형식, 소식, 상식의 이념 종교문화비평 제20호. 2000.
- 이은경. 종묘제례악과 경모궁제례악의 비교, 분석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주영, 조선시대 직령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정희. 조선시대 장악원 전악의 역할, 한국음악연구 제40집, 한국국악학회. 2006.
- \_\_\_\_\_. 한국음악연구, 조선시대 장악원 전악의 역할, 한국음악연구, 제40집, 한국국악학회. 2006.
- 이종숙. 종묘제례악 일제강점기 왜곡 과정 연구, 이화사학연구 제30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의례와 성격, 서울학 연구 제 43호, 서울 시립대학교부설서울학연구소. 2011.

- 이희재. 유교제례에서의 악의 의미- 한국의 문묘와 종묘제례악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22집.pp,165-188,에서 보이는 악인의 복식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0.
- 임응희. 종묘일무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사훈. 악복과 무복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특히 악학궤범과 각종 진연의례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제7권, 1985.
- 장영수. 악학궤범에 나타난 악인복식의 소원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정경옥. 조상 제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영란. 수작의례에 나타난 의례와 복식 연구 : 일무복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영진.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왕직아악부의 음악활동, 음악과 민족, 제23호, 민족음악학회. 2002
- 정희진. 종묘제례악의 해금선율과 악장선율의 비교 : 현행 종묘대제연주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미라. 조선후기 선조대 궁중연향 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은수,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한정원. 정조 이후의 제례악 악현 변천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허선형. 종묘제례악에 나타난 음악사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기타]

인터넷사이트

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http://www.cha.go.kr)

전주이씨대동종약원 [www.rfo.co.kr](http://www.rfo.co.kr)

종묘제례보존회 [www.jongmyo.net](http://www.jongmyo.net)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http://www.nrich.go.kr)

# ABSTRACT

A Study on the Musician's Costume of ' Royal Ancestral Rite  
Music(Jong-myoo Jeryeak)'

Park, So-Yeo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Royal Ancestral Rite the king of the Joseon Dynasty that is directly involved in many sacrifices the largest and the best national offerings, these seedling Royal Ancestral Rite Music(Jong-myoo Jeryeak) to entertain in the ancestral do with all of the Sacred Heart Instrumental (乐) · Song(歌) · Dance(舞) says. Sejo Royal Ancestral Rite Music(Jong-myoo Jeryeak) before the music of China had been done in the nine years Sejo (1463) King Sejong invented botaepyeong and were replaced by one jeongdaeeop. Jong-myoo Jeryeak of the highest proportion of court music of music, this comes down to the Royal Ancestral Rite of the Jong-myoo Jeryeak and Confucian Royal Ancestral Rite Music has a seed. The Jong-myoo Jeryeak does not come from a foreign country even more valuable in the creation of the music in 1964 in recognition of one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Society is continuously training performers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Royal Ancestral Rite Music and by performing the music which was listed as the 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2001, The society is creating a new form of art from Royal Royal Ancestral Rite Music which is considered as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arts.

The seed of the wicked doubles Royal Ancestral Rite Music(Jong-myoo Jeryeak) currently open with jehyang seed seed held in Jong-myoo Jeryeak and the concert hall are two Jong-myoo Jeryeak jehyang In this study, seedling Royal Ancestral Rite Music(Jong-myoo Jeryeak) is played with only the seed of the wicked Doubles Ancestral Rite Music was to limit the scope of the study. Royal Ancestral Rite Music of the wicked doubles the night by hitting start and end notifying jipbak musicians(執拍樂師) of the costumes, direct instrument played with a akgong(樂工)'s costumes, the song (樂章) that is responsible for dochang musicians (導唱樂師), munmu (文舞) Botanica plains of radish Muumuu (武舞) radish is not responsible jeongdaeeop ilmu akgong(佾舞樂工) are two of the doubles dochang musicians akgong of the doubles and the doubles is the same elsewhere did not. So musicians doubles, akgong doubles, doubles, separated by ilmu akgong summarized.

The current form of the seed of Shinto music since Sejo is in the form of large, Shinto music for seed Sejo appeared for the literature since the 15th century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ak-hak-gwe-beom(樂學軌範)」,17th-and 18th-century 「jongmyo-ugwe(宗廟儀軌)」 · 「Jeungbomoonheonbigo(增補文獻備考)」, the end of the 19th century, 「Chosun-ak-geayo(朝鮮樂概要)」 written by the view, and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wo doubles in the form when it is written to identify specific seed doubles Shinto music that allows you to more accurately 「ak-hak-gwebeom」 · 「jongmyo-uigwee」 · 「Chosun-ak-geayo」 in the center of the selected seed of Shinto music organize the wicked doubles the theoretical studies were in progress, the current doubles the wicked picture of the book and the website of materials and on May 5, 2013 held at the seedling seed directly into the Great Events practical way to extract data by viewing the research was performed at the same time.

Royal Ancestral Rite Music of the wicked that the wicked, clothed in royal rituals that doubles particular part of our unique culture, yet it contains must be properly guarded succession which is worn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doubl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radition make every effort to restore, and doubles the first of these cultural assets shown in the Gini visibility so seriously is the place to be. Thus, the seed has meaning and value of the wicked doubles Shinto music in any form, depending on the age and succession, changes that led to the current state to clean up an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our tradition is evil doubles carving, succession will be more careful in the significance of the honor have.

With the contents of this study, first, the meaning for Royal Ancestral Rite Music(Jong-myō Jeryeak) and its history, tradition, status, etc. were examined.

Second, the seed of the wicked doubles data Shinto music shows

appears in the form of the Joseon Dynasty literature is literature 「ak-hak-gwebeom」, 「jongmyo-uigwe」, 「Chosun-ak-geayo」 centered on the type and form of wicked doubles, changes are summarized.

Third, the current seed doubles organize Royal Ancestral Rite Music was wicked.

Fourth, the Joseon dynasty of the current literature and summarized by comparing the evil dou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Looking at Ak-sa(樂師) costumes, 「ak-hak-gwebeom」 for the bokdu(幘頭), nokchosam(綠綃衫), ojungdae(烏鞞帶), heukpihwa(黑皮靴), was wearing, 「jongmyo-uigwe」 were worn in the same way.

「Chosun-ak-geayo」 seed of the wicked Jong-myoo Jeryeak is not otherwise specified, could not say. Bokdu(幘頭), with the breastplate of the current musicians, tripod, cotton wear cheongsam(青衫). Bokdu(幘頭) wear is dusik(蠹蝕) 「ak-hak-gwebeom」 has been passed down to the present as of the current along the edge of a line of gold bokdu literature as a larger, more rounded look of each is different. From the literature which had exhausted other Ssanghakhyungbae(雙鶴胸背) wearing cheongsam(青衫) with the previous one to the other is the biggest feature. Wear the daedea(大帶) was that the current form of the gakdae(角帶) to wear and are the same for the of the current stand of black belt or a blue cloth wrapped tripod is wearing. Since the shoes which had 「ak-hak-gwebeom」 were replaced by leather in heukpihwa(黑皮靴), when viewed in the drawings is shorter than in the literature,

such as the zipper that was worn changes.

Looking akgong(樂工) costumes, 「ak-hak-gwebeom」 stop the gaejeok(介幘), biransam(緋鸞衫), baekjumaldae(白紬末代), beakpomal(白布襪) were beakmaldea(白末代), ophiri(烏皮履), 「jongmyo-uigwe」 for the weekend gaejeok(介幘), hongjuui(紅紬衣), beakchodea(白綃代), , was wearing beakpomal(白布襪), ophiri(烏皮履), 「Chosun-ak-geayo」 in the 1892 revision for gaejeok(介幘), hongjuui(紅紬衣), Namsadae(藍絲帶), beakpomal(白布襪), was wearing fophiri(烏皮履), 1917 amended the provisions of the beakmaldea(白末代), ophiri(烏皮履) disappeared. Akgong current doubles for the gaejeok(介幘), hongjuui(紅紬衣), Nanshadae(藍絲帶) wear. Dusik(蠹蝕) of current gaejeok(介幘) wear 「ak-hak-gwebeom」 continues to the present show, and hongjuui(紅紬衣) the 「jongmyo-uigwe」 system as seen from the previous biran hongjuui(紅紬衣) while wearing hemp and beakpomal(白布襪) of the stop had been coat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disappeared. Battalion from the seed 「ak-hak-gwebeom」 and 「jongmyo-uigwe」 made of white tulle band stand but, from 「Chosun-ak-geayo」, twisted and made Nansha color. In all the literature danyo(短鞦) akgong shoes is wearing ophiri(烏皮履), but the sum of current akgong ankle length to wear mokhwa(木靴) is a kind of makes a difference.

Looking ilmu akgong(佾舞樂工) costumes, 「ak-hak-gwebeom」 and 「jongmyo-uigwe」 botaepyeong ilmu akgong the jinhyunkan(進賢冠) namjuui(藍紬衣), jeokmaldae(赤末代), jeoksang(赤裳), and wearing a foam, ophiri(烏皮履). jeongdaeeop ilmu akgong pibyeon(皮弁) the camp entrance and writes instead of the rest of the abdominal The doubles as

ilmu botaepyeong akgong. 「Chosun-ak-geayo」 current and jeongdaeop akgong the botaepyeong ilmu ilmu akgong two of the doubles are the same, 「Chosun-ak-geayo」 was bokdu(幘頭), hongjuui(紅紬衣), namsadae(藍絲帶), the current ilmu akgong Wear bokdu(幘頭) hongjuui(紅紬衣), namsadae(藍絲帶), mokhwa(木靴). Costume of the current ilmu akgong except the dusik(head dress) the akgong costumes and doubles are the same. Dusik of akgong ilmu in the literature in pibyeon(皮弁). bokdu(幘頭) has gone through a change in the system, 「ak-hak-gwebeom」 and by comparing the current configuration, most changes have doubles.

Thus, the overall change in the wicked costumes the production and storage, so that it is easy to wear and modernization is made from materials that are readily available, the current of the other musicians on the breastplate of doubles that tags, akgong costumes configuration changes continue in the literature by Lee looks for two points and footwear (履) Tues at (靴) seems to turn into patterns. Costume of ilmu akgong olsurok botaepyeong and also to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jeongdaeop was lost except dusik(head dress) of akgong(樂工) to wear the dress and the changes were doubles.